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석사학위 논문

# COVID-19가 교육에 미친 영향

-사교육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김지영

# COVID-19가 교육에 미친 영향

-사교육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COVID-19 on Education  
: Focused on private tutoring

202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김지영

# COVID-19가 교육에 미친 영향

-사교육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승 권

이 논문을 문화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김 지 영

## 김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한 종 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승 권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2020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ABSTRACT

### The Impact of COVID-19 on Education - Focused on private tutoring -

Kim, Jiyoung

Advisor : Prof. Lee, Seungkwon, Ph.D.

Department of Cul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OVID-19, which occurred in 2019, terrified the world in 2020 and made non-face-to-face life common. In order to prevent infection,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restricted school attendance and replaced face-to-face classes with distance classes.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has also changed to non-face-to-face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VID-19 situation. However, anxiety about the effects of non-face-to-face education made him hesitate to switch to the non-face-to-face method. Although there were concerns about having to adopt a new method of education,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accepted non-face-to-face educa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which is also a matter of survival. These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the cause of the test takers' anxiety. As a result,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increased in various ways. Several people predicted that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would decline early in the COVID-19 situation, but it actually increased. I am curious about the cause of the unexpected result.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COVID-19 on private education by investigating in-depth the changes that appeared in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after COVID-19. Accordingly, this researcher selected 9 private education providers with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and 4 private education consumers, a total of 13 participants.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changes in private

education and experiences as providers and consumers of private education after COVID-19.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the effects of COVID-19 on private education are as follows. As the number of days for attendance due to COVID-19 and the prolonged non-face-to-face classes in public education due to online education increased, students' freedom of study time increased. The gap between parental education, economic power, and student's academic willingness to increase the degree of freedom of learning is further strengthened by expanding the amount of learning through private education. Increased. In addition, the anxiety sentiment of the consumer's infection affected private education by halting private education, which was judged not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entrance exam, but it caused a conflict that could not be stopped for private education in major subjects related to entrance examination. The prolonged period of COVID-19 has provided a non-face-to-face teaching situation for private education beyond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providers are seeking to introduce distance classes to transition from face-to-face classes to non-face-to-face classes. As such, COVID-19 is having a large and small impact on private education.

This study will understand the effects of COVID-19's long-term or new infectious diseases on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private education. In addition, private education and public education are in a complementary position, so it will be abl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public education.

**Keywords** : COVID-19,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gap in academic achievement, introduction of non-face-to-face classes, distance classes

## 국문 초록

2019년 발생한 COVID-19는 2020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비대면 생활을 보편화시켰다. 공교육 기관은 감염 방지를 위해 등교를 제한하고 원격수업으로 대면 수업을 대체하였다. 사교육 기관 또한 COVID-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비대면 방식의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비대면 방식에서의 전환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 COVID-19 상황에서 사교육 시장은 비대면 교육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는 수험생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는 사교육 수요는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COVID-19가 확산되자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증가한 것이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사교육 시장에 나타난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COVID-19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사교육 경험이 있는 사교육 공급자 9명과 사교육 수요자 4명, 총 1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OVID-19 이후의 사교육 공급자와 수요자로서의 경험과 사교육 변화에 대해 심층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COVID-19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았다. COVID-19로 인한 등교 제한과 온라인 교육으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될수록 학생들의 학습시간 자유도는 증가하였다. 부모의 교육열과 경제력, 학생의 학업 자발성 등의 차이로 자유도가 높아진 학습 시간을 사교육을 통한 학습량 확대로 교육을 강화한 유형과 학생의 선택에 맞겨 자유롭게 방치한 유형의 학업성취도 차이는 COVID-19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또한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는 입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과목은 사교육 중단으로, 입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과목은 사교육을 중단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COVID-19의 장기화는 공교육을 넘어 사교육에도 비대면 수업을 강요하였고, 사교육 공급자들은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듯 COVID-19는 공교육은 물론이고 사교육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COVID-19의 장기화, 또는 새로운 범유행 감염병이 사교육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서 사교육 시장에 나타난 인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교육 공급자가 참고해야 할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교육과 공교육은 상보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COVID-19, 사교육 의존, 학업성취도 격차, 비대면 수업, 원격수업 도입

## 목 차

### ABSTRACT

|                          |    |
|--------------------------|----|
| 제 1 장 서론 .....           | 1  |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1  |
| 제 2 절 연구 문제 .....        | 3  |
| 제 3 절 용어 정리 .....        | 4  |
|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      | 6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 7  |
| 제 1 절 우리나라 교육계 현황 .....  | 7  |
| 1. 우리나라 교육의 종류 .....     | 7  |
| 2. 우리나라 사교육 현황 .....     | 9  |
| 제 2 절 COVID-19의 영향 ..... | 22 |
| 1. COVID-19의 특징 .....    | 22 |
| 2. COVID-19와 교육 .....    | 25 |
| 제 3 절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 27 |
| 1. 4차 산업혁명 .....         | 28 |
| 2. e-러닝과 u-러닝의 보급 .....  | 30 |
| 3. 언택트 시대의 교육 .....      | 32 |

|       |                               |    |
|-------|-------------------------------|----|
| 제 3 장 | 연구방법                          | 37 |
| 제 1 절 |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심층인터뷰             | 37 |
| 제 2 절 | 연구자의 위치                       | 39 |
| 제 3 절 | 연구 참여자 선정                     | 40 |
| 제 4 절 | 자료 수집                         | 41 |
| 제 5 절 | 자료 분석                         | 44 |
| <br>  |                               |    |
| 제 4 장 | 연구 결과                         | 46 |
| 1.    | 자율학습시간 증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 증가..  | 46 |
| 2.    |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와 사교육 선택의 갈등      | 54 |
| 3.    |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 전환을 위한 원격수업 도입 | 60 |
| 4.    | 연구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변화             | 67 |
| <br>  |                               |    |
| 제 5 장 | 결론                            | 69 |
| 제 1 절 | 연구결과의 요약                      | 69 |
| 제 2 절 | 연구의 시사점                       | 71 |
| <br>  |                               |    |
| 참고문헌  |                               | 73 |

## 표 목 차

|  |    |
|--|----|
| <표 1> 인터넷 강의와 화상 강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          | 5  |
| <표 2> 연도별 사설 학원 설립의 변화 .....                 | 12 |
| <표 3> 연도별 학령인구 변화 .....                      | 13 |
| <표 4> 교육 단계 및 소득별 사교육비 .....                 | 14 |
| <표 5> 연도별 과목 및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            | 20 |
| <표 6> 유형에 따른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              | 21 |
| <표 7> SARS, MERS-CoV, COVID-19의 사망률 비교 ..... | 24 |
| <표 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내용 .....               | 25 |
| <표 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행동 강령 .....            | 26 |
| <표 10> 해머슬리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교 .....          | 38 |
| <표 11> 사교육 공급자의 일반적 특성 .....                 | 41 |
| <표 12> 사교육 수요자의 일반적 특성 .....                 | 41 |
| <표 13> 인터뷰 질문지 .....                         | 43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대한민국 교육의 종류 .....  | 7  |
| <그림 2> 산업혁명과 교육의 변화 ..... | 28 |
| <그림 3> 분석 절차 .....        | 45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은 이름 그대로 혁명으로,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여러 분야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적용되면서 개인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중요한 것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 교육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교육은 학벌 중심 사회의 잔재를 버리지 못한 채,<sup>1)</sup> 여전히 고학력·명문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입시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으로 채우지 못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인지시켰고, 이것이 사교육 시장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남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고자 공교육에 사교육을 더하고, 나아가 선행 학습까지 행하며 끊임없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지식을 주입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불안한 사교육 수요자들은 서로 경쟁하며 사교육에 의존하였고, 과도한 가계 지출로 이어져 문제를 일으켰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고, 사교육 공급자들은 빠르게 새로운 대안을 찾아냈다.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수요자들을 안심시켰다. 사교육 수요자들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사교육 중단으로 인한 학력 저하가 더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교육을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시 정책은 사교육 공급자들에게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하였다. 어떠한 정책이 발표되면 사교육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사교육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최근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sup>2)</sup>로 인해 사교육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

1) 사회 전반에 팽배한 학력과 학벌 중심의 인간관계, 기업 내의 관행적인 학력과 학벌 중심으로 발생하는 고용과 승진, 학력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 등  
 2)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1~14일이며, 예방법으로 비말 및 접촉에 의한 감염과 전파를 최소화하고자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위생 수칙 교육을 보편화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겪고 있다. 2019년 발생한 COVID-19는 2020년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으며, 개인의 소소한 일상도 크게 변화시켰다. COVID-19가 일반적인 감염병과 다른 점은 감염병의 영향력이 기존 사회질서를 변화시킬 만큼 컸다는 점이다.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서 사회·경제 분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COVID-19로 인한 상황을 국가재난 상황으로 판단하여,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신종 플루 바이러스 이후에 감염병에 의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20.2.23)까지 발령하였다. COVID-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예방책은 마스크 착용과 사람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밝혀졌다.

COVID-19는 사회 전 분야에 큰 타격을 주었고, 공교육과 사교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교육은 개학 연기, 등교일 제한, 원격수업을 시행하였고, 사교육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임시 휴원, 원격수업, 인원 제한에 따른 분반 수업 등의 변화가 있었다. COVID-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무분별한 대인 접촉을 피하기 위한 소규모 수업의 증가는 사교육이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COVID-19의 장기화는 사교육 수요자의 대면 수업 선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의 바람을 일으켰다. COVID-19가 불러온 원격수업은 e-러닝, u-러닝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까지 COVID-19로 인한 공교육의 원격수업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으나, 사교육의 교육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공급자의 경험을 통해 COVID-19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과 교육 방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공교육과 사교육은 상보 관계에 있음을 직시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기존 교육 방식만 고수하지 않아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사 본인들도 새로운 교육 방식을 연구하고 시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 문제

2019년 말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COVID-19는 사회의 거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제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사교육 시장 또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다. COVID-19는 비밀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 COVID-19 발생 이후 2015년 대한민국에 상륙했던 MERS-CoV(메르스바이러스)<sup>3)</sup>가 남긴 감염 공포까지 더해져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심리가 짧은 기간에 크게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COVID-19의 강력한 전염성과 백신 개발의 지연은 감염공포로 이어졌고,<sup>4)</sup>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온라인 환경을 이용한 원격 교육과 화상 회의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대면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재난 상황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변화일 수도 있지만, COVID-19가 장기화되고, 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되는 상황에서 사교육 공급자들의 대응 방식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범유행 감염병이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COVID-19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2. COVID-19 이후의 사교육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3) MERS-CoV(메르스바이러스) :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 불리며,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낙타와 박쥐를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가 되는 동물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2015년 대한민국에 상륙하여 피해를 주었다.

4) 전염(infection)은 병을 매개하는 주위 환경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쓰였고, 감염(contagion)은 병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쓰는 용어로 사용된다.

## 제 3 절 용어 정리

### 1. 사교육 공급자와 사교육 수요자

수요공급의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학 관계 및 공급자들의 경쟁에 따라 형성된다. 사교육 시장 또한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사교육 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만나면 하나의 수요공급의 장(場)이 형성된다.

사교육 시장에서 바라본 사교육 공급자는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및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자이며, 두 번째 유형은 지식 관련 서비스를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교육 강사이다. 사교육 공급자 중 2가지 유형이 복합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사교육 수요자는 사교육 시장에서 사교육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공 받는 대상이다. 사교육 수요자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교육 서비스의 직접 제공 받는 학생이며, 두 번째 유형은 학생을 보호·관리하며 교육 서비스의 선택부터 비용 지불까지 책임지는 학부모이다. 사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학생은 서비스를 직접 받지만 경제력이 부족하며, 교육 서비스 탐색에 수동적 위치에 놓인 반면, 학부모는 사교육 서비스 탐색에 능동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교육 공급자’로 사교육 강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사교육 수요자’로 학부모를 지칭하였다.

### 2. 인터넷 강의와 온라인 화상 강의

COVID-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보편화되면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수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수업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인터넷 강의’로 흔히 동영상 강의라고 부른다. 강사가 수업을 미리 기획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수업 장면을 촬영한 후에 수업계획안에 맞춰 편집한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수업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의 시간 투자 비중이 큰 편이며, 촬영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단방향으로 제공된다. 수업이 제공되는 동안 학생들

과외 교류가 없으므로 현장 수업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화상 강의’로 실시간 수업 중에 학생과의 교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수업과의 큰 차이는 없다. 단, 전자기기의 성능과 강사의 기술적 역량에 따른 수업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표 1>을 통해 인터넷 강의와 화상 강의를 비교해 보았다.

**<표 1> 인터넷 강의와 화상 강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구분          |        | 인터넷 강의 | 화상 강의         |
|-------------|--------|--------|---------------|
| 공통점         |        | 비대면 학습 |               |
| 차<br>이<br>점 | 방향     | 단방향    | 쌍방향           |
|             | 수업형태   | 듣기 위주  | 질의응답, 온라인 평가  |
|             | 수업 난이도 | 평준화    | 수준별 차이        |
|             | 비용     | 저비용    | 인터넷 강의보다는 고비용 |

두 강의의 공통점은 비대면 학습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지 않으며, 각자의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강의는 공급자가 수요자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이미 촬영된 공통된 내용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형태이지만, 온라인 화상 강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기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어도 서로의 반응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사교육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일한 비율로 선택하여 진행하고자 했으나, 사교육 공급자를 우선 선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사교육의 특성상 경쟁 상대에 대한 노출 우려와 비밀 유지<sup>5)</sup>를 희망하는 일부 수요자에게 민감성이 감지되었고, 공개한 정보의 진실성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교육 수요자 4인은 인터뷰 당시에는 내용에 민감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인터뷰에 적극성을 보인 수요자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사교육 수요자의 인터뷰 내용은 사교육 공급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사교육 공급자 선정에도 제한점을 두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 공급자 중 시설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제하였고, 교육 경력과 시설 운영 경력의 합이 평균 15년 이상인 사교육 공급자로 제한하였다. 또, 현재 활동 지역에서 5년 이상 사교육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COVID-19의 유행에도 운영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사교육 공급자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범유행 감염병 외에 다른 외부 조건에 의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체의 사교육 공급자와 전체 사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한 한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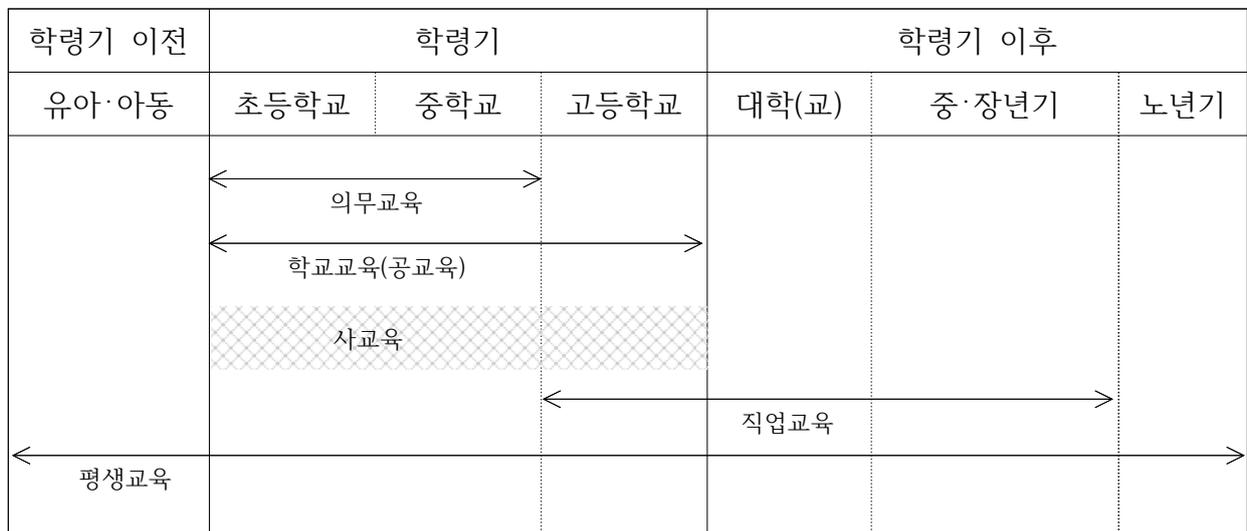
5) 수요자가 희망하는 비밀 유지는 자녀의 학업 성취 정도, 경제적 수준, 특정 사교육에 대한 비공유 심리, 특수한 가정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었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우리나라 교육계 현황

#### 1. 우리나라 교육의 종류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전 생애에 걸쳐 꾸준한 지식·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령기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령기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초 학문 교육을 형식교육, 학령기 전후에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직업교육과 취미·교양·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 등을 비형식 교육이라고 부른다. 평생교육은 학령기 이전의 유·아동 교육부터 학령기의 기본 교육, 학령기 이후의 직업교육, 계속교육 등 모두를 포함한 교육으로 생애교육이라 부를 수 있다. 또, 국가의 제도를 기준으로 제도권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공교육이라 부르며, 대표적인 예로 학교 교육이 여기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제도권을 벗어난 학령기 교육을 사교육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 대한민국 교육의 종류

## (1)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

형식 교육이란 제도화 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을 총칭하며, 국가가 인정한 교육체계로 졸업장 또는 학위 취득이 뒤따르는 정규 과정을 뜻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며,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 목적을 띄고 있기에 학교 교육으로, 공교육과 의미가 같이 한다.

반면에 형식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비형식 교육이라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비형식 교육을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직업교육은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학교 중심 직업교육으로 고등학교에서 산업계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는 학교 밖에서 사회교육 형태로 실시되는 직업교육으로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직무교육 등 직업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뜻한다. 직업교육과 비슷한 의미의 산업 교육은 제품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직업군의 연수를 뜻하는 말로, 넓게는 기업 또는 산업체가 피고용자에게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 연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교육학회의 설립 이후 비생산직의 관리자 교육을 뜻하는 ‘기업 교육’까지를 포괄하여 비형식 교육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산업 교육은 생산직 교육 외에도 신입사원교육, 관리능력향상 교육, 계층별 교육, 담당 영역의 전문가 교육, 외국어, 해외연수, 여사원 교육, 사내강사 양성, 조직개발, 국제 실무교육 등이 포함된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평생교육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쳐 배운다는 의미의 교육으로, 과거에는 성인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더 큰 의미로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모두 포괄한다. 성인교육은 청년이나 성인기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총칭하며, 원활한 사회적 역할 수행 및 개인적 성장을 위해 지식, 태도의 변화, 기술을 지향하는 학습 활동 과정을 뜻한다. 직업교육도 성인교육에 포함되며, 그 외에도 문맹 퇴치를 위한 기초 교육, 여가를 위한 레저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양 문화교육 등이 있다. 정규 교육 이후에 행해지는 성인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발달로 인해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성인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개인의 성숙과 사회적·문화적 성장을 전 생애에 걸쳐,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이든 학습의 기회를 삶의 현장에 이루어냄을 목적으로 한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대 수명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고령사회로 진입시켰으며, 고령 인구의 증가와 중장년층의 실업자 수 증가는 중장년층을 평생교육의 주요 집단으로 성장시켰다.

평생교육의 학점인증제도는 제도권의 형식 교육과 맞닿아 있으며, 형식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공교육과 사교육

공교육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관리되는 학교교육과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공교육은 보편적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육을 뜻하며, 민간 혹은 종교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과 구별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립학교도 교육 내용이나 운영 면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공교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권 교육을 통칭한다. 그에 반해 사교육은 일반적으로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일부 시각으로는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공공성과 구별하여 사교육으로 이해하지만, 사립학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공교육에 포함시키며, 사교육은 학원 교육 및 개인·그룹 과외 등 학교라는 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뜻한다(윤종혁 외, 2003). 사교육도 비형식 교육의 한 종류이지만,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과의 차이는 학위 인증·자격 및 기술 획득이 목표가 아니며, 오로지 입시를 위한 점수 획득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학령기 학생들의 학교 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지칭한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비교할 때 점수 획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에 입시 경쟁에서 우위에 있게 된다. 그렇지만 두 종류의 교육은 상보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상보적이어야 한다.

## 2. 우리나라 사교육 현황

최근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단순한 공교육에 대한 보조 역할을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과열된 교육 경쟁에서 높은 학업 성취를 기대하기에 사교육은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교육은 재능개발 및 진로탐색을 위한 수단으로, 또 돌봄과 인성교육과 같은 가정 고유의 역할까지 대신 수행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 결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가 커지며 부정적 인식도 같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

민국 정부는 지난 50여 년 동안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교육 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본 절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등장과 성장의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을 정리하였다.

### (1)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변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었고, 정부는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이 등장하였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키며 위기 속에서도 변화를 통해 성장해 나갔다. 과거 사교육 시장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COVID-19에 대응하는 사교육의 변화와 태도를 예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 이후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계획하였고, 1954년부터 증가한 초등학교 취학률은 1959년 96%를 달성하였다(교육부, 1998). 초등학교 취학률 증가는 상급학교 진학으로 이어져 중학교 입시 경쟁과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명문 중학교 진학을 위한 학교 교사들의 방과 후 지도는 점차 개인 과외로 변형되었고 사교육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학교 교사의 과외 활동이 불법인데다, 고액으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음에도 불법 사교육은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음지에서 지속되었다. 중학교 평준화 정책은 초등학생의 입시 경쟁을 완화시켰으나, 낮아진 관문으로 인해 중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상급학교인 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명문 고등학교 입학 을 위한 입시 경쟁은 중학교 평준화 정책 이전보다 치열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시행을 통해 표면적으로 고교 입시 경쟁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대학교 입시 과외가 전면에 등장하며 새로운 사교육 문제를 발생시켰다(강일국, 2010).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과도한 입시 경쟁은 사교육 시장을 자연스럽게 탄생시켰고 성장시켰다.

고학력, 명문 학벌 획득을 위한 열망은 교육 경쟁을 멈추지 못하게 하였고, 대학생 또는 학교 교사들은 과외 수업 형태로 사교육 시장에 가세하며, 사교육 보편화에 앞장섰다. 그러나 사교육의 확산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맞물려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정부는 결국 사교육 억제 정책으로 1980년 7월 30일 교육개혁(7·30 교육개혁)이

시행되었고, 재학생의 사교육 금지 조치와 함께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었다.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축소, 고교 내신제 도입, 대학 입학정원 확대, 졸업 정원제 시행 등, 여러 정책을 발표하며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해소하려 노력하였다. 7·30 교육개혁은 과외를 전면 금지시키며, 사교육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일으킨 듯 보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다. 고학력과 명문 학벌이 계층 상승의 통로이자 사회적 지위 획득의 지름길이라 판단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입시 성공을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였다. 단속의 눈을 피해서 지불한 과외비에는 위험 보상금까지 포함되어 과외의 축소는 커녕 오히려 사교육비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음지에서 몰래 행해지는 불법 고액 과외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더욱 성행하게 되었고, 가계 경제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대학이 서열화되면서, 명문 대학 합격을 위한 눈치작전이 치열해졌고, 과도한 눈치작전으로 대학 정원이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선지원·후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단순 지식을 배제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을 지향하며 논술고사의 도입과 함께 학력고사에서 주관식을 도입하며 본고사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강일국, 2010).

1989년 6월 이후 부분적으로 과외가 허용되면서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방학기간에 대학생 과외가 허용되었고, 대형 학원의 등장으로 사교육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1994년 부활한 본고사는 1997년 폐지를 선언하며, 사교육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라졌다.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생활기록부를 내세웠고, 단 한 번의 시험 평가가 아닌 여러 번의 평가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요자들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명문 학벌에 대한 욕망을 간과하였던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은 모든 전형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사교육 참여율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제공할 뿐이었다(강일국, 2010). 2000년 4월 27일 과외의 전면 허용으로, 사교육 시장은 부흥기를 맞아 급속도로 팽창되었다. 사교육 시장은 이후 정부에서 사교육 억제 정책을 펼칠 때마다 정책 시행 초반만 잠시 위축될 뿐 빠르게 새로운 교육 정책에 적응하며 영향력을 지켜나갔다. 매번 정부는 사교육 억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응 정책을 펼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구조 및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 시장의 몰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교육 정책의 변화가 아닌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대 이후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다자녀 출산을 꺼리는 풍조가 확

산되어 사교육 시장에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강일국, 2010).

다음 <표 2>는 연도별 사설 학원 수의 변화를 조사한 자료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 2> 연도별 사설 학원 설립의 변화

| 항목   | 인구 천 명 당 사설 학원 수<br>(A÷B×1,000) (개) | 사설 학원 수(A) (개) | 주민등록인구(B) (명) |
|------|-------------------------------------|----------------|---------------|
| 2010 | 1.5                                 | 75,952         | 50,515,666    |
| 2011 | 1.5                                 | 76,165         | 50,734,284    |
| 2012 | 1.5                                 | 75,695         | 50,948,272    |
| 2013 | 1.5                                 | 75,281         | 51,141,463    |
| 2014 | 1.5                                 | 76,030         | 51,327,916    |
| 2015 | 1.5                                 | 78,483         | 51,529,338    |
| 2016 | 1.5                                 | 78,306         | 51,696,216    |
| 2017 | 1.5                                 | 80,130         | 51,778,544    |
| 2018 | 1.6                                 | 80,412         | 51,826,059    |
| 2019 | 1.6                                 | 80,937         | 51,849,861    |

※ 출처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2010~2019)

주민등록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사설학원은 미세한 등락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전국 학령인구 수 변화를 주요 연령 계층으로 구분한 것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 3> 연도별 학령인구 변화**

| 연령<br>계층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전체<br>(6-21세)    | 9,950 | 9,785 | 9,590 | 9,397 | 9,181 | 8,920 | 8,672 | 8,461 | 8,260 | 8,047 |
| 초등학교<br>(6-11세)  | 3,280 | 3,109 | 2,926 | 2,783 | 2,751 | 2,720 | 2,688 | 2,719 | 2,757 | 2,765 |
| 중학교<br>(12-14세)  | 1,985 | 1,914 | 1,867 | 1,818 | 1,719 | 1,578 | 1,458 | 1,385 | 1,340 | 1,318 |
| 고등학교<br>(15-17세) | 2,084 | 2,062 | 2,028 | 1,985 | 1,912 | 1,868 | 1,816 | 1,715 | 1,574 | 1,454 |
| 대학교<br>(18-21세)  | 2,601 | 2,700 | 2,769 | 2,811 | 2,799 | 2,755 | 2,710 | 2,642 | 2,589 | 2,511 |

※ 출처 : 통계청(2010~2019), 「장래인구추계」 (단위 : 천 명)

<표 3>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부터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소폭 증가했을 뿐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와 <표 3>의 자료를 보면 실제 주민등록인구수의 증가와는 별개로 전국 학령인구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설 학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의 상승으로 학생 1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과목의 수 또는 사교육 양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 <표 4>는 교육 단계에 따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가구 소득에 따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나타낸 자료이며, 2011년~2019년도까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 4> 교육 단계 및 소득별 사교육비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전체       |              | 24.0 | 23.6 | 23.9 | 24.2 | 24.4 | 25.6 | 27.2 | 29.1 | 32.1 |
| 교육 단계    | 초등학교         | 24.1 | 21.9 | 23.2 | 23.2 | 23.1 | 24.1 | 25.3 | 26.3 | 29.0 |
|          | 중학교          | 26.2 | 27.6 | 26.7 | 27.0 | 27.5 | 27.5 | 29.1 | 31.2 | 33.8 |
|          | 고등학교         | 21.8 | 22.4 | 22.3 | 23.0 | 23.6 | 26.2 | 28.5 | 32.1 | 36.5 |
| 가구 소득    | 200만원 미만     | -    | -    | -    | -    | -    | -    | 9.3  | 9.9  | 10.4 |
|          | 100만원 미만     | 6.8  | 6.8  | 6.8  | 6.6  | 6.6  | 5.0  | -    | -    | -    |
|          | 100~200만원 미만 | 10.9 | 11.0 | 11.1 | 10.2 | 10.2 | 9.8  | -    | -    | -    |
|          | 200~300만원 미만 | 17.4 | 16.8 | 16.0 | 15.9 | 15.9 | 15.4 | 15.3 | 15.6 | 17.0 |
|          | 300~400만원 미만 | 23.4 | 23.0 | 22.1 | 21.2 | 21.2 | 21.1 | 21.2 | 22.2 | 23.4 |
|          | 400~500만원 미만 | 29.0 | 28.8 | 28.0 | 27.2 | 26.6 | 26.5 | 27.4 | 27.9 | 30.0 |
|          | 500~600만원 미만 | 34.0 | 33.2 | 33.0 | 31.9 | 31.1 | 31.0 | 32.2 | 32.9 | 35.4 |
|          | 600~700만원 미만 | 39.4 | 36.7 | 35.9 | 36.7 | 36.1 | 36.5 | 36.4 | 37.3 | 40.4 |
|          | 700만원 이상     | 44.0 | 42.6 | 41.5 | 42.8 | 42.0 | 44.3 | -    | -    | -    |
|          | 700~800만원 미만 | -    | -    | -    | -    | -    | -    | 40.7 | 42.2 | 46.4 |
| 800만원 이상 | -            | -    | -    | -    | -    | -    | 48.3 | 50.5 | 53.9 |      |

※ 출처 : 통계청(2011~2019),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단위 : 만 원)

위 도표는 2017년도 이후 초등학교 학령인구만 소폭 상승하였을 뿐,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교육 단계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비용과 가구별 소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의 양적, 질적 격차의 발생을 알려주는 자료가 된다.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자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평판이 좋은 사교육 시설을 찾게 되는데, 고소득 자일수록 자녀의 성공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는 문제이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어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국가가 교육 정책 변화를 이끄는 배경이 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은 교육 정책 변화에 공교육보다 한발 빠르게 반응하였고, 더 나아가 틈새 전략까지 펼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시행된 사교육 정책은, 새롭게 발표되는 교육 정책마다 사교육비 감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사교육 수요자의 입시 정책에 대한 불안한 심리에 대처하지 못했으며, 수요자의 요구사항 파악에도 부족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쟁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발표되면, 변화된 정책을 빠르게 해석하고 남들보다 유리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학부모들은 전력을 다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누구보다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곳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 시장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근본적인 생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을 국가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정책을 바꾸는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 물론 사교육 시장의 부정적인 면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의 적이 아님을 인정하고, 사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편적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교육 시장을 영역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교육 시장은 그 형태가 단순하지 않다. 그럼에도 국가는 사교육 시장의 영역을 하나로 보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2시 이후 학원 운영 시간을 제한한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정책 시행 이후 학원은 22시가 지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사교육 공급 시간을 제한하여 근본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막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으로는 사교육 소비자에게 과외 학습을 선택하게 하여 더 큰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하거나, 밖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소방 계단까지 막아버린 불법 건물 내에서 남몰래 사교육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사교육 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에 맞는 정책을 따로 적용해야 부작용과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다.

## (2) 일반적 사교육 유형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유형을 시설과 운영의 차이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며, 사교육 하면 떠올리는 사교육 유형으로는 학원과 과외, 학원과 과외의 중간 형태를 띄는 공부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시설의 규모와

한 수업 당 관리하는 학생 수의 차이로 구분하며, 개인이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 기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가정 방문 학습 형태를 띠는 학습지와 비대면 수업의 선두 주자인 인터넷 학습이 있다.

### 가. 학원

보편적으로 한 명의 강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처럼 진도를 나가며 약속된 교재로 각 단원을 교육하는 형식의 사교육 시설을 학원이라 부른다. 2000년 이전은 종합학원이라 불리는 입시 위주의 학원이 주된 형태였다. 종합학원은 한 건물 내에서 내신과 관련된 주요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외에도 국어, 과학, 사회까지 부수적으로 포함시켜 학교처럼 정해진 시간표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충분한 교실과 과목별 강사를 모두 갖추고 있어 시설 규모가 매우 크다. 제 2의 학교처럼 학생의 생활 전반과 시험 기간 동안 전 과목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은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받았으며, 과외보다 저렴한 수강료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장점으로 작용했다. 당시 종합학원의 학생 수는 공교육 기관의 학생 수와 대등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종합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치, 공간, 인력에 초기 자본이 많이 요구되기에 신설 종합학원의 등장은 대기업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쉽게 확장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졌다.

한창 성행했던 유명 종합학원에서 경력을 쌓은 강사들은 자신의 독립된 사교육 시설을 운영하길 희망했으나, 초기 자본과 각 과목별 교사 채용에 대한 부담은 종합학원의 선택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이를 타파하고자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전문성을 강조한 단과학원을 선택하였다. 사교육 공급자 입장에서의 단과학원의 장점은 최소의 공간과 인력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사교육 수요자 입장에서의 장점은 과목과 강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부터 증가한 단과학원은 종합학원에 비해 수업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종합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시간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과목별로 학생에게 맞는 수업 유형을 찾아 선택과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과 방과 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단과학원은 점차 사교육 시장을 장악해 나가며 현재 사교육 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형태가 되었다.

### 나. 과외

과외는 한 명의 강사가 한 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며, 보통은

학생의 일정에 맞춰 학생의 집으로 방문하거나 학생이 강사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로 이동하여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과외는 강사와 학생이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므로 라포 형성에 가장 용이한 형태이다. 수업 내용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전반적인 학습을 지도하거나, 부족한 교과 내용 또는 선행 학습을 제공하는 등 수업 내용이 결정된다. 학생의 학습 정도를 강사가 매순간 확인할 수 있어 학습 부진아 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 과외를 진행하는 공급자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은 경우, 수업료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개인 과외 또는 그룹 과외로 진행된다. 과외 전문 강사도 교육청에 등록하여 활동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과외도 다수 존재한다. 강사의 경력과 실력에 따라 수업료에 큰 차이를 보이며, 보편적으로 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사교육 유형에 속한다.

#### 다. 공부방

공부방은 1980년대에 복지 차원으로 제공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육·문화 공간을 의미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거 공간을 활용한 소그룹 방문 교습소로 형태가 변형되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주된 학습 대상이었으나, 점차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교육 대상 연령이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한 명의 강사가 전 교과목을 학습지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형태에서 점차 주거 공간에서 교육하는 단과 학원 형태로 변형되었다. 단과 학원과의 차이는 개인 과외교습자 신청을 한 후에 운영한다는 점과 단일 과목이 아닌 강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과목을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외와의 차이점은 강사가 학생의 집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학원으로 방문하듯 지정된 주거 공간으로 방문하여 학습하는 형태이지만, 요즘은 과외 또한 공부방처럼 지정된 공간으로 학생이 방문하여 수업하는 곳도 증가하여 그 경계가 모호하다. 보편적으로 공부방 강사의 주거 공간을 공부방으로 운영되지만, 학습자의 주거지로 방문하거나 유해한 시설이 없는 별도의 장소 등에서도 가능하다. 공부방 강사는 신고자 1인만 가능하지만, 교육청 신고 후 부부·친족에 한해 공동 교습이 가능하다. 교습 과목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강의실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어 학원처럼 운영이 가능하나, 강의 시간당 최대 수용 인원은 9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학습지

학습지는 방문강사가 소속된 회사의 학습지를 교재로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단계의 문제와 단원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학습지 강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보통 수업시간은 30분 이내로 짧게 진행된다. 월간 비용이 저렴하여 2~3개의 학습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교과에 국한되지 않으며, 폭 넓은 교육 형태를 보인다. 학습지 강사가 머무는 시간이 짧기에 학습지 문제를 풀고 점검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된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 주된 교육 대상이다.

#### 마. 인터넷 학습

인터넷 학습은 온라인 환경을 갖춘 각각의 장소에서 학생들이 접속하여 교육청 또는 기업형 대형 학원에서 현장 수업 또는 기획된 수업을 촬영하여 만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업 형태이다. 인터넷 학습은 단방향으로 수업이 제공되기에 학생은 강사의 얼굴을 알지만, 강사는 학생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강사가 촬영해 놓은 수업을 시간의 구매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실력이 검증된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화된 그룹을 겨냥하여 해당 단원의 수업이 단방향으로 진행되기에 수준별 학습이 불가능하고, 특히 대면 교육의 장점인 관리 기능이 떨어진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인터넷 학습을 선택할 경우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사교육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사교육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의 형태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따라서 사교육의 형태는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참여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공급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서 사교육의 형태를 수요자의 측면에서 매년 조사해오고 있다(통계청, 2007~2019). 즉, 사교육의 참여형태를 학원 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통신으로 구분하고, 참여유형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일반교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원수강이 16.3만원으로 가장 많고, 개인과외 3.0만원, 그룹과외 2.2만원, 방문학습지 1.2만원, 인터넷 통신 0.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교과 참여율은 학원수강이 41.1%로 가장 높았고, 방문학습지 12.9%, 그룹과외 9.3%, 개인과외 8.9%, 인터넷 통신 7.5% 순으로 나타났다(정한나, & 백일우, 2018).

2016년 교육 플랫폼 전문기업에서 설문 조사 기관인 오픈서베이를 통해 학령기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500명에게 실시한 ‘2016년 사교육 현장 조사’를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사교육 중 가장 만족을 느끼는 유형으로는 학원이 37%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개인과외 31%, 교육방송 11%, 인터넷 강의 10.5%, 학습지 6.5%, 없음 4%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되었다(사교육 현장 조사, 2016). 가장 불만족을 느끼는 사교육 유형으로는 학습지가 30.3%로 가장 불만족스러웠으며, 인터넷 강의를 16%로 그 다음 순위로 조사되었다. 개인 과외에 대한 선호도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59.8%, ‘이미 참여시키고 있다’가 8.8%로 타 사교육 유형에 비해 개인과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교육 현장 조사, 2016). 개인 과외의 목적은 ‘자녀 수준별 맞춤형 학습’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1대1 관리 가능’은 21%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 과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용’이 25%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과외 강사와 직접 관련된 ‘강사의 학력과 전공’ 21.8%, ‘경력’ 21.7%, ‘평판’ 19.5%, ‘성별’ 11% 순으로 조사되었다(사교육 현장 조사, 2016). 개인 과외 조사 항목을 통해 사교육 수요자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사교육 공급자의 실력을 매우 중시함을 알 수 있다.

COVID-19 유행 이전에는 사교육 유형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으나, COVID-19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책으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대면 수업을 고수하던 사설 학원들도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고 있다. COVID-19 유행 전의 원격수업은 인터넷 학습이 대표적이며, 교육청과 기업형 학원에서 자본을 투자하여 일류 강사의 수업을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운영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COVID-19 유행 이후 일반 학원부터 개인 과외 강사까지 인터넷 망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령이 어릴수록 원격수업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기에 COVID-19 종식 이후에도 모든 사교육 유형에서 비대면 수업을 내세울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COVID-19가 기존의 사교육 유형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3) 사교육 참여율 현황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양적으로 과포화 상태이다. 시장에서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한 질적 변화가 수반된다. 그 결과 사교육은 서비스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사교육 서비스는 수요자를 사교

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고, 이는 사교육 참여율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내신에 직결된 일반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 참여율 증가는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5>는 과목에 따른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을 나타낸 것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청과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연도별 과목 및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 과목              | 2017   |          |         |         | 2018   |          |         |         | 2019   |          |         |         |
|-----------------|--------|----------|---------|---------|--------|----------|---------|---------|--------|----------|---------|---------|
|                 | 평균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일반고 (%) | 평균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일반고 (%) | 평균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일반고 (%) |
| 일반교과 사교육        | 52.2   | 54.8     | 57.5    | 50.4    | 53.4   | 55.0     | 59.3    | 53.1    | 56.7   | 57.9     | 61.8    | 57.8    |
| 예체능, 취미, 교양 사교육 | 41.1   | 66.8     | 24.2    | 14.7    | 42.5   | 66.4     | 24.7    | 16.1    | 44.0   | 67.4     | 26.2    | 15.3    |
| 취업관련 사교육        | 0.8    | 0.0      | 0.0     | 1.7     | 0.6    | 0.0      | 0.0     | 1.6     | 0.6    | 0.0      | 0.0     | 1.5     |
| 진로·진학 학습상담      | 3.0    | 2.3      | 3.5     | 4.2     | 3.6    | 2.9      | 3.7     | 5.3     | 2.3    | 1.9      | 2.2     | 3.6     |

※ 출처 : 통계청(2017~2019),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단위 : 만 원)

2017년 이후의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일반 교과 즉, 내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목에 대한 사교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체능, 취미, 교양에 대한 사교육 참여율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학교급별 등락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참고로 취업 관련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이후 상승하지 않은 것은 공교육에서 자유학기제 의무 시행과 함께 진로와 진학 수업을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 <표 6>는 유형에 따른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을 나타낸 것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청과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유형에 따른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 유형                | 2017   |          |         |         | 2018   |          |         |         | 2019   |          |         |         |
|-------------------|--------|----------|---------|---------|--------|----------|---------|---------|--------|----------|---------|---------|
|                   | 평균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일반고 (%) | 평균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일반고 (%) | 평균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일반고 (%) |
| 개인과외              | 8.7    | 6.5      | 10.1    | 12.9    | 9.2    | 7.0      | 11.1    | 13.2    | 8.9    | 6.4      | 10.4    | 14.3    |
| 그룹과외              | 9.3    | 10.7     | 10.0    | 7.8     | 9.4    | 10.6     | 10.4    | 7.7     | 9.3    | 10.5     | 10.0    | 7.6     |
| 학원수강              | 36.4   | 33.8     | 46.3    | 37.8    | 37.1   | 33.0     | 47.9    | 41.4    | 41.1   | 37.6     | 50.7    | 46.0    |
| 유료인터넷 및<br>통신강좌 등 | 5.2    | 7.4      | 3.3     | 3.8     | 6.0    | 8.0      | 4.0     | 4.8     | 7.5    | 9.5      | 5.3     | 6.4     |

※ 출처 : 통계청, 교육부(2017~2019),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학원 수강 및 인터넷 학습 형태의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예전에 비해 학생 1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의 과목 또는 양이 증가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과외보다 상대적으로 여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학원과 인터넷 학습의 중복 참여를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 학습의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의 서비스 공급 유형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사교육 서비스는 이제 내신 관리를 위한 단순한 지식 제공을 형태를 넘어섰다. 과거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내신 향상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학생의 생활 관리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2000년대의 사교육이 교과 위주의 내신 관리가 주목적이었다면, 2010년 이후 입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 형태의 사교육 시설이 수요자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더 나아가 인성 교육 및 정서 관리, 하교 후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등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교육 서비스도 등장하였다. 사교육은 생존 본능에 의해 변화에 민감하다. 그렇기에 이번 COVID-19 유행으로 격발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 도입된다면, 현재 사교육 공급자가 제공하는 개인형 맞춤 서비스 이상으로 빈틈없는 학생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사교육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싸움에서 밀려나 다른 서비스 유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제 2 절 COVID-19의 영향

### 1. COVID-19의 특징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 확인된 신종 호흡기바이러스로, 감염으로 인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질병관리청 자료(2020)에 의하면 “국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코로나-19이며, 영문은 COVID-19, 학술적으로는 ‘SARS-CoV-2’로 명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파 경로는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비말과 COVID-19에 오염된 물건을 접촉 후, 손을 씻지 않고 호흡기 계통과 눈 주변 등을 만졌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복기는 1일에서 최대 14일 정도이며 평균 4~7일 정도이다(질병관리청, 2020). 다만 최근 들어 밀폐된 실내 공기의 바이러스 오염이나 배설물 등으로도 감염 의심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권태감, 발열,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폐렴도 발생한다. 이 밖에도 인후통, 두통, 설사 등 다양하다.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중증환자들에게는 유사한 바이러스인 에볼라나 에이즈 치료제를 대신 투약하는 예도 있다. 치명률은 WHO 기준 3.5%이지만,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전염률과 사망률이 다르다. 감염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속에서 예방은 개인위생과 방역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는 방법 외에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일한 상태이다(질병관리청, 2020).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라고 선언한 WHO가 전염병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현재까지 세 번 선언하였는데,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 플루, 그리고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가 세 번째이다. 과거에는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21세기는 지구촌 시대라는 명칭처럼 항공과 선박을 이용하여 전 세계

를 쉽게 오갈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전염병 또한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인간의 무분별한 도시화로 질병의 숙주가 되는 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인간과의 접촉이 쉬워졌고, 그로 인해 변형된 바이러스가 도시화 된 인간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메르스바이러스(MERS-CoV),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나타나는 흔한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잘 변형되는 특성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COVID-19는 박쥐에서 사향 고향으로 전파된 SARS, 박쥐에서 낙타로 전파된 MERS-CoV처럼 박쥐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와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이들의 모두 호흡기로 감염되는 공통점을 가지며 주요 증상으로 발열, 기침,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COVID-19의 경우 SARS, MERS-CoV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치사율은 SARS나 MERS-CoV보다 낮지만, 높은 전염성과 빠른 전파속도를 갖췄다. 그렇기에 질병관리청은 온 국민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전 국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시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된 SARS의 위협을 2003년 4월에 받았다. 이미 SARS는 짧은 시간 30여 국가로 퍼져 8,000명 이상을 감염시킨 후였다. 그리고 2015년 한국을 강타한 MERS-CoV은 국내에 유입되어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으로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감염병 사례이다. 2019년 12월 31일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보고됐던 COVID-19는 9개월 만에 전 세계 200여 국가로 퍼졌고, 1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다음 <표 7>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감염병인 SARS, MERS-CoV, COVID-19의 전 세계 및 중국, 한국의 감염자 수와 사망률을 파악한 표이다.

<표 7> SARS, MERS-CoV, COVID-19의 사망률 비교

|       |    | SARS(사스) |                | MERS-CoV(메르스)      |                 | COVID-19(코로나 19)   |                |
|-------|----|----------|----------------|--------------------|-----------------|--------------------|----------------|
| 발견 시점 |    | 2002년    |                | 2012년(한국 2015년 유행) |                 | 2019년(한국 2020년 유행) |                |
| 전세계   | 감염 | 8,237    | 사망률 =<br>9.4%  | 1,367              | 사망률 =<br>38.62% | 50,395,305         | 사망률 =<br>2.49% |
|       | 사망 | 775      |                | 528                |                 | 1,256,177          |                |
| 중국    | 감염 | 5,328    | 사망률 =<br>6.55% | 0                  | 사망률 =<br>0%     | 86,245             | 사망률 =<br>5.37% |
|       | 사망 | 349      |                | 0                  |                 | 4,634              |                |
| 한국    | 감염 | 0        | 사망률 =<br>0%    | 186                | 사망률 =<br>20.97% | 27,553             | 사망률 =<br>1.74% |
|       | 사망 | 0        |                | 39                 |                 | 480                |                |

※ 출처 :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2002년 정부의 초기 방역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SARS에 의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 피해는 없다.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 발생 후 190일 후에 환자수 0를 기록하며 종식된 MERS-CoV는 약 6개월 간 186명의 환자를 발생시켰다. 현재 유행하는 COVID-19 감염율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로 인식할 수 있으나 사망률을 계산하면 20.97%로 COVID-19의 사망률인 1.74%에 비해 12배나 큰 수치이다. 2015년 당시 MERS-CoV는 큰 공포로 작용하였고, 인구 이동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발생되었으며, 2천 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를 단행한 바 있다. COVID-19는 3가지 감염병 중 가장 사망률이 낮으나, 빠른 전파력과 확산 속도로 개학 연기, 등교 일수 제한,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전면 시행 등 MERS-CoV보다 강력한 비대면 상황을 만들어냈다.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명령하였고, 초기 발표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내용**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구분         | 일일 확진 환자 수 <sup>6)</sup><br>50명 미만  | 일일 확진 환자 수<br>50~100명 미만  | 일일 확진 환자 수<br>100명 이상 또는<br>1주 2회 더블링 <sup>7)</sup> 이 발생한 경우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임·행사 허용</li> <li>● 스포츠 행사 관중 허용(수 제한)</li> <li>● 다중이용시설 원칙적 허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li> <li>● 스포츠 행사 무관중으로 진행</li> <li>●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인 이상 모임 금지</li> <li>● 스포츠 행사 중지</li> <li>● 고·중 위험시설 운영 중단</li> </ul> |
| 유치원, 초·중·고 | 등교·원격수업   | 등교·원격수업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br>※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 전국 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020), 사회적 거리두기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개인 방역 수칙, 자가 격리와 관련된 수칙 등을 구분하였고, 감염 전과 후의 국민 행동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직관적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및 감염 경로 등을 재난 문자로 안내하며 위험을 통보하고, 국민 스스로 개인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 2. COVID-19과 교육

2020년 5월 인천광역시의 과외 강사의 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COVID-19에 노출된 사교육에 관심이 쏠렸다. 인천 과외 강사 사태 이후 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사교육 시설까지 방역 인식이 보편화 되었고, 그동안 개인 방역만 신경을 쓰던 작은 규모의 사교육 시설도 방역 용품을 구입하여 방역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sup>8)</sup>되었을 때, 다수의 학생

6) 최근 2주간의 확진자 수를 의미한다.

7) 더블링은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한 상황을 뜻한다.

8) 2020년 8월 30일부터(일부 지역은 8월 27일부터) 2020년 9월 6일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

을 관리하는 중대형 학원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리 배치 시 간격을 두고 배치하였고, 교실마다 강사를 포함하여 10인 미만으로 인원수를 제한하였다. 수업 방식은 인원수 제한을 두고 소수로 면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방식,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동시 진행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업당 학생 수가 8명 이하인 사교육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상향에 따른 수업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음 <표 9>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교육 시설의 행동 강령을 재구성 한 것이다.

**<표 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교육 시설 행동 강령**

| 구분    |        | 개념                     | 사교육 시설 행동 강령   |
|-------|--------|------------------------|--|
| 1단계   | 생활방역   | 생활 속 거리두기              |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강사와 학생 전원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
| 1.5단계 | 지역유행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2단계   |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음식 섭취 금지<br>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8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2.5단계 | 전국유행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br>시설 면적 8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3단계   |        | 전국적 대유행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 가능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020), 거리두기 체계 개요

COVID-19가 교육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의 주요 원인은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대면을 기피하는 언택트 상황일 것이다. 언택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사회적 변화가 발생했고, 이는 전 산업에 영향을 끼쳤다.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키오스크<sup>9)</sup>와 같은 로봇

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수도권 지역에 3단계 발령 시 사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임시로 3단계에 준하는 2.5 단계를 발표하였다. 이후 2020년 11월 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되었다.

9) 인터랙티브 키오스크(Interactive Kiosk).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무인 주문 단말기를 뜻한다.

이 일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감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상점 출입을 자제하는 대신 인터넷 쇼핑으로 대체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식자재 또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 시작하며, 배달 관련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COVID-19 이후 가전 판매량도 증가했다. 비대면 상황에서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집 안에서 여가를 즐기거나, 재택근무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해 다양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COVID-19는 노동,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 사회구성원의 생활패턴(Life style)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육계는 교육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구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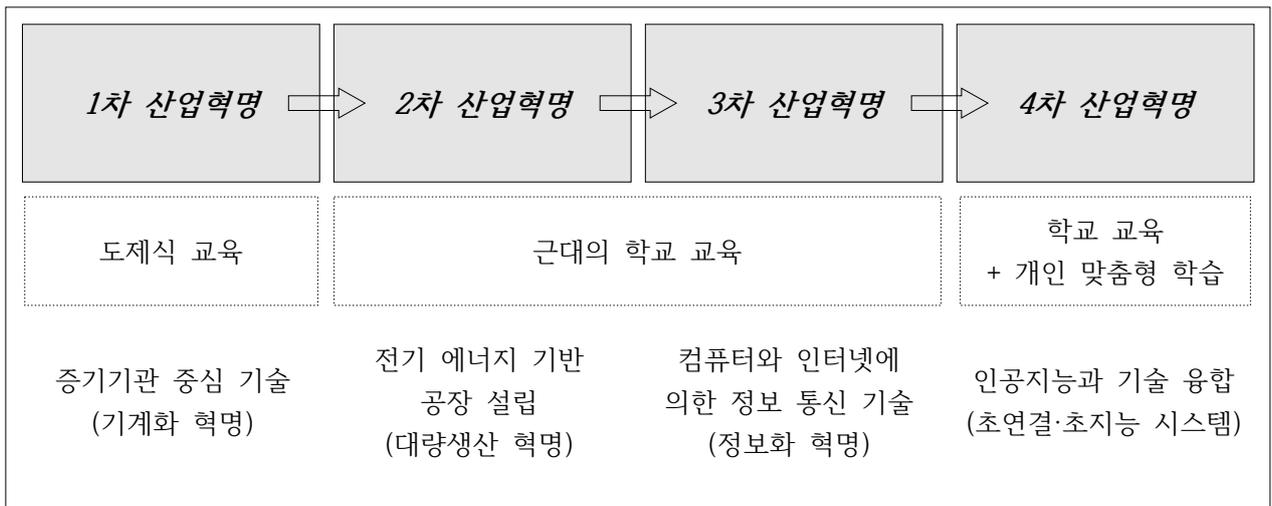
COVID-19는 기존의 교육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비대면 수업의 전국 규모의 시행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COVID-19는 대한민국이 아닌 전 인류에 영향을 끼쳤고, 우리는 전 지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새로운 교육 방식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연구·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화 사회를 지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새로운 교육 혁신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보화 사회 이전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COVID-19가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교육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COVID-19 감염과 확산을 억제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온라인 개학과 함께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전국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면서 어느덧 온라인 교육이 교육방식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COVID-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비대면, 비접촉으로 대표되는 언택트 산업이 일상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가 ‘교육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와 제도권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사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다.

## 1. 4차 산업혁명

2016년 Schwab, K.(2016)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혁명적인 변화라고 언급하였다. 어느덧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과 대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림 2> 산업혁명과 교육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은 ICT와 연계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와 빅데이터(Big Data) 등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망을 통한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합당한 명령을 내려 수행한다. 앞으로 교육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적용 가능하다.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적의 교육 효과를 내기 위한 교육 자료가 개인별 맞춤 제공이 가능해지면(안종배, 2017) 학습자는 최상의 교육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데이터 축적이 방대해진다면, 교사의 역할인 지식 교육 서비스는 사람에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 환경에서는 사물과 학습자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교사

는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가 교육 환경에 적용되면,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관한 데이터 축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대한 분석이 용이해진다. 각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설계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대응은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교육당사자들을 만족시키게 된다. 교과 교육 외에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술을 활용해 교실에서 현장학습은 물론, 원자의 구조 또는 동식물의 내부 구조 및 에너지 대사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학습을 가상현실로 체험한다면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무한 변신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속도이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사교육은 항상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사교육의 최대 목적은 이윤이다. 수요자들은 제도에서 벗어난 변화를 불안해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사교육은 공교육에 맞춘 교육의 변화를 취할 뿐 작은 이윤으로 보상받는 교육에는 쉽게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부 주도하에 공교육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영역이 매우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학교 교육은 단순 지식의 암기와 활용을 벗어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교육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은 과거 역량의 인재를 가르치는데 몰두하고 있다.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이 절대 필요하지만 활용을 배제한 기존의 학습방식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에 효용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체험하고 이해하지 못한 단순 지식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혁신해서 대응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기존 사회에서 쉽게 수치화 할 수 있는 스펙이 중요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핵심 키워드로 작용한다. 미래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누구나 대체할 수 없는 즉,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창조해야 하며, 이것이 기계로 대체되지 못할수록 더욱 가치 있게 평가될 것이다. 기존의 고학력·명문학벌의 중요성은 앞으로 무의미해질 것이다. 공교육은 새로운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고, 사교

육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며 적응해가야 한다.

## 2. e-러닝과 u-러닝의 보급

우리나라는 새로운 교수·학습 기술을 선보일 때마다 ‘학습’이 아닌 ‘기술’에 집중하다보니 기대한 만큼의 학습효과를 얻지 못했다. 변화된 교육 환경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최대 목표인 것처럼 제시되어 교육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게 하였다. 특히 기술과 매체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생각하고 학교 수업에 적용하다보니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e-러닝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동시에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하였지만, e-러닝에 대한 기술과 교수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e-러닝이 제시한 만큼의 기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강인애, 2006). 그러나 e-러닝이 지닌 상호작용 및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 환경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성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어지는 u-러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활용 기술과 구체적 응용전략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실제 교사들이 제대로 된 활용 방법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대적 대세 교육이라는 이유로 성급하게 도입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박성익 외, 2007). 그럼에도 u-러닝을 현장에 도입하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u-러닝을 구축하고 있는 기술에 내제된 풍부한 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품질 개선과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익, 2007)

### (1) e-러닝

e-러닝은 전자적 형태의 학습을 의미한다. 웹과 유선망 등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주요 기술이며,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은 필수가 된다. 그래서 PC방이나 컴퓨터실처럼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학습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의 분리가 기본 형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혼합하여 병행하기도 한다. 학습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e-러닝 프로그램을 실

행할 때 학습이 시작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목표로 한다. e-러닝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기업교육 분야이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일 것이다. e-러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융통성 있는 학습 환경을 강조하며,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상호작용 활동을 지향하기에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교사와 학생 서로 간에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정인성, & 최성희, 2002). 그러나 교수 방식에서 e-러닝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는 경우는 기술적 기반이 모두 갖춰진 경우이다. 기존의 교실과 같은 학습 환경에서는 지식의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며, 실제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학습 환경의 기술적 지원은 필수 조건이 된다.

## (2) u-러닝

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e-러닝에 비해 첨단 무선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불러온 m-러닝과 u-러닝은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 가능성과 잠재성을 크게 확장시켜 주었다. 그러나 e-러닝, m-러닝, u-러닝 사이의 관련성과 유사성, 차별성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e-러닝, m-러닝, u-러닝의 개념이 교육 현장에서 혼재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내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국가의 정책 지원을 받아 모바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m-러닝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지칭하며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 공학 분야와 학교 현장에서는 m-러닝 대신 u-러닝이라는 용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모바일을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에서도 m-러닝이 아닌 u-러닝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임정훈, 2007).

u-러닝은 언제 어디에서나 가능한 학습을 의미한다. 센서나 칩의 형태로 유비쿼터스<sup>10)</sup> 컴퓨팅 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모든 공간이 학습공간이 된다. 휴대가 용이한 모바일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학습활동이 가능하다. 무선인터넷과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기술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

10)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컴퓨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시킨 것으로 ‘어디에서나 있는’, ‘편재하는’이라는 뜻을 지닌다.

있는 미래 교육시스템이다. u-러닝은 영구적 학습자원관리가 가능하며, 즉각적 접근이 용이하기에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 자료에 접속할 수 있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에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 상호작용이 모두 가능한 점은 교육의 시행에서의 큰 장점이 된다. u-러닝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 정해진 커리큘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형식 교육과 어울린다. 비형식 학습은 이동성이 높은 학습 환경과의 연동이 필요하기에 u-러닝은 비형식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3. 언택트 시대의 교육

#### (1) 미래 학교 교육의 변화

교육 선진국들은 거듭된 교육 개혁으로 교육 과정 자율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곽영순 외, 2013). 우리나라도 6차 교육 과정부터 학교수준 교육 과정을 강조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진로 적성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박순경 외, 2010). 학생별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학교 교육에서 이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과정 개혁은 필수가 되어야 하고, 교사는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능동적인 자세로 역할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OECD(2006)는 미래 학교로의 변화를 유발하는 현 교육의 요인들을 지적하였고,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언제부터인가 학습자와 학부모가 수요자가 되어 학교에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인터넷과 ICT의 발달로 교실의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학교 밖에서도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로 학교를 대신할 학습 제공이 가능해졌기에 학교는 변화를 꾀해야 한다. 학교는 ICT를 매개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학습기관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분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필요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롭게 요구되는 핵심역량과 새로운 학습내용을 교육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과 평생학습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권성호(2006)와 한선관(2007)

의 연구에 따르면 u-러닝 학습자의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저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정보통신기술로는 u-러닝의 완전한 구현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미래 학교가 지향해야 할 교육 방향은 u-러닝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전개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u-러닝을 통한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초등학교부터 변화된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역할 변화에는 학교 교사의 질적인 역할 변화도 요구된다(OECD, 2006). 첫째, 교사는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내용을 지역 사회에 맞춰 재구성하는 연구자여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활용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권성호(2006)와 한선관(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효능감이 익숙한 학습 환경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새로운 전자기기 기반의 학습 환경에서는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자로서의 교사란 자율적인 교사로 자신의 교육활동을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새로운 기술과 교수법이 필요하다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사회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u-러닝 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u-러닝에 적용하기 위한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전자기기 학습 환경에 대한 교수 방법 교육이 필수 조건이며, 교사는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교사보다 학교 차원의 효과성을 추구해야 한다. 교사 한 두 명의 변화보다 학교 전체가 변한다면 교사의 변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실제 이번 COVID-19로 인해 학교에서 진행된 원격수업의 질은 가장 낮은 기술적 소양을 갖춘 교사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전국 단위로 행해지는 원격 교육이었으나, 평소 학교의 새로운 교수법과 기술 교육 교사 연수가 질적, 양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학교를 팀으로 봤을 때, 팀의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팀 전체의 역량이 구성원 개인의 역량의 총합을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기에 학교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Sahlberg, 2011). 교육환경은 많이 변화했고 더 많이 변화할 것이다. 그렇기에 미래 학교 교육 또한 교육 내용과 교육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 (2) 언택트 시대의 교육

언택트 시대의 교육은 COVID-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우리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분석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교육, 비대면(언택트, Untact)으로 지칭되는 미래 교육서비스를 정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언택트 서비스란, 사람과 사물 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적 거리를 좁히는 서비스로, 비대면 시대에 필수가 된 미래 교육서비스의 한 방법이다. 언택트 교육의 확산은 COVID-19의 전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나타난 필연적 결과이며, 4차 산업혁명의 방아쇠로 작용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노동과 경제, 생산과 소비는 2, 3차 산업혁명의 배경과는 다른 형태이며, 물리적이고 정해진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생산 활동과 차이를 보인다. 교육 역시, 기존의 교실이라는 정해진 공간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교육 형태에서 e-러닝과 u-러닝처럼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 및 개인의 관점에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미래 교육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의 급격한 확산과 장기화는 전 세계인에게 비대면을 일상화시켰으며, 많은 산업은 ‘언택트’ 방식으로 빠르게 도입하며 변모하고 있다. COVID-19의 높은 전염성과 무증상 감염 가능성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극에 달하게 하였고, 사람들은 사람과의 만남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비접촉, 무인 시스템 등 언택트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역 사회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경 봉쇄, 이동 제한, 감염 위험 업종의 일시 폐쇄 등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의 역대 최고치 매출 달성과 배달 대행 서비스의 성행 등 언택트 소비가 급증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재택 근무,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 그동안 발전되었던 ICT 기술이 뒷받침 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디지털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일부 산업과 젊은 층들 사이에서만 언택트 소비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사회 전반으로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그동안 신기술의 확산과 보급에서 나타난 변화의 과정처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대중의 반발과 저항이 관성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전승화, 김정호. 2020). 그런데 COVID-19로 인해 반발과 저항을 할 새도 없이 언택트 생활 방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히 퍼져 나가며, 인식 변화와 행동 변화가 뒤따르게 되었다. 언택트 서비스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아날로그 방식의 다양한 활동을 디지털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sup>11)</sup>도 언택트 서비스 중의 하나로 국내외 주요 기업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승화, 김정호. 2020).

COVID-19의 빠른 전파를 막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국가는 비대면 상황을 유지하고자 직장인과 학생의 생활 속 접촉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휴교 등을 명령하였고, 원격 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을 권고하였다. 이전까지는 국내의 소수 기업과 시범 학교 등 특정 일부만 사용하던 화상회의 솔루션 및 온라인 교육을 COVID-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교육의 전국적 확산은 초단시간에 일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5,000만 명 수준에 불과하던 구글 클래스룸 이용자가 불과 몇 달 사이에 1억 명으로 급증했으며, 앞으로도 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언택트 서비스의 빠른 확산 배경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시행과 PC, 스마트폰, 인터넷 망 등 보편화 된 첨단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학업 유지로 볼 수 있다. 언택트 교육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작이었으나 e-러닝 및 u-러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며, 교육계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 (3) 언택트 시대와 원격수업

COVID-19의 3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COVID-19의 장기화와 새로운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은 원격수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아지게 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은 COVID-19의 빠른 확산으로 급하게 시행한 만큼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기에 UNESCO(2020)에서는 성공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네 가지 준비 사항을 제시하였다(장혜승, 2020).

첫 번째는 ‘기술적 준비도(Technological readiness)’로 가정에서 전기, 전화, TV, 라디오, 디지털 기기, 인터넷 연결 등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와 함께, 원격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플랫폼의 준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교 외에도 원격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권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시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하여도 서버에 부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매끄러운 수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계정으로 다양한 원격수업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의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이 개별적 관심과 수준에 맞는 자

11)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 서비스로 구글(구글 클래스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팀즈), 블랙보드, 코세라, 유다시티, 네이버(두레이), EBS(온라인클래스) 등이 있다.

12) 온라인 개학 혼란 속 존재감 드러낸 '구글 클래스룸',

(<https://www.ajunews.com/view/20200420155047810>) 아주 경제, 2020년 4월 20일 참고

울적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콘텐츠 준비도(Content readiness)’는 채택된 디지털 기기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학년과 모든 교과의 콘텐츠를 확보하는지가 중요한 이슈이다. 원격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학년과 모든 교과의 콘텐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수준별 콘텐츠와 함께 비교과 영역의 콘텐츠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교수학습지원 준비도(Pedagogical and home-based learning support readiness)’는 교사가 원격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학생의 원격수업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매일 가정에서 지원해야 하는 자녀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거나 언어 장벽(다문화 가정 등)으로 인한 지원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이는 원격 학습 전력의 중요한 준비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중 교사 지원 부분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원격수업이라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발생하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지원 인력 배치가 필수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부모의 도움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의 경우를 위해 가정학습도우미 역할 지원과 학교 지원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격수업 통합 콜센터의 운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관리 및 평가 준비도(Monitoring and evaluation readiness)’는 원격 학습 이력 및 과정을 확인, 관리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만, 평가의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흥미나 학습 차이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의 개념을 포함하기에, 라디오나 TV와 같은 일방향 매체 학습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그 제한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장혜승, 2020).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정비이다. 공교육과 달리 평가시스템이 국가적으로 공인되지 못하는 사교육에서 유네스코의 권고를 어떠한 형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적의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한다면 언택트 시대의 사교육은 공교육의 지원자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제 3 장 연구방법

### 제 1 절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심층인터뷰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로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질적 연구는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인식론에 근거를 두며, 되도록 인위적 조작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연구 참여자에게서 언어와 행동, 그리고 삶의 흔적에서 수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찾는 연구 방법이다. 질적 연구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그 속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다.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이면서, 연구 도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연구의 질을 좌우한다. 질적 연구는 관찰, 면담 외에도 사진과 기록물, 문서와 그림, 그리고 비공식적 대화 등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는 한 가지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관찰과 면접이 자료 수집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지만, 연구 참여자의 가치관이나 과거의 경험 등 관찰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는 면접을 통해 얻을 수 있기에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면접을 많이 사용한다. 면접 내용을 기록할 때는 제보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면접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적어도 되지만, 대화 내용을 놓칠 수도 있고, 참여자의 억양이나 속도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을 마친 후 녹음 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한다. 현장노트, 메모, 관찰자의 평을 읽으며 자료에 담긴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기술된 질적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범주화하여 분류한 후 해석 작용으로 마무리 한다. 해석은 자료에 담긴 중요한 주제나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질적 연구는 어떤 사회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현상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의 시각과 맥락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로 구성원들의 신념이나 가치, 상황정의 및 해석, 동기 등을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비수량적 방법으로 연구자 스스로가 주요 연구 도구가 되기에 연구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의 개입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교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식 변화를 범유행 감염병과 연관시켜 조사하고자 하였다. 범유행 감염병의 장기화 또는 재 유행 시 사교육 시장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사교육 시장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직접 현상을 경험한 전문가에게 해당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심층인터뷰가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채택하였다.

심층인터뷰는 관심 주제에 대한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일정한 형식과 구조를 지닌 대화로써 목적성과 의도성을 지닌 대화이다. 그렇기에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경험을 갖춘 대상자를 선별하여 연구자의 관심 주제에 대해 미리 계획한 질문을 던져 자료로 수집할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들이 질문의 의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심층인터뷰는 참여자가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 반복을 통해 이해시킬 수 있고, 참여자의 응답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명확히 되물을 수 있다(Creswell, 2017).

심층인터뷰 시 연구자는 자신의 입장이 명확해야 대상자에게 인터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인터뷰 전 사전 연구를 통해 인터뷰 지침을 만들어 미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는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한 질문을 하되, 까다롭거나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인터뷰는 강압적이어서도 안 되고, 참여자를 채근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윤리가 중요하며, 연구 참여자의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주수영, 2005).

질적 연구의 단점으로는 주관적이며, 조사된 내용과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적 연구로는 다루지 못할 심층적이고 풍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과 작은 표본으로도 연구가 가능하며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반관계로 여겨야 할 것이다.(Creswell, 1998).

**<표 10>** 해머슬리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교

|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
|-------------------|------------------|
| 경험적               | 현상학적             |
| 실증적 탐구            | 해석학적 탐구          |
| 수량화               | 상호주관적            |
| 통계 방법을 이용한 기술과 분석 | 사회현상의 사실적 기술과 해석 |

심층인터뷰 방법에는 구조화·반구조화·비구조화 인터뷰 형식이 있다. 구조화 인터뷰는 스케줄을 기초로 한 면담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 구조화 인터뷰는 대화라기보다는 양적연구에 가까운 정해진 범주 내의 답변만 가능하기에 참여자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단 구조화 인터뷰는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구조화 인터뷰는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면담 가이드를 통한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면담 방식이다. 구조화 인터뷰에 비해 융통성이 커서 연구자는 상황에 따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질문의 폭과 범위를 바꿀 수 있다. 비구조화 인터뷰는 자유로운 상태의 면담으로 가장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면담이다. 단,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비구조화 인터뷰 또한 면담 가이드가 사용되지만, 면담 내용의 전체적인 통제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비구조화 인터뷰를 채택하였으며, 상황에 맞춰 반구조화 인터뷰를 추가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제 2 절 연구자의 위치

질적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중요한 연구 도구로 연구자의 자질을 꼽을 수 있다. 연구자의 학문적 자질과 함께 연구자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내기에 연구자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김영천, 2006). 본 연구자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사교육 기관에 종사하며, 사교육 강사로서 주로 중, 고등학생의 입시 교육을 담당하였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교육 기관의 운영진 역할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사교육 강사로서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사교육 공급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다각도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사교육 공급자에 대한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해당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사교육 공급자를 선별하여 접촉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 내부자적 시각으로 기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기에 질적 연구를 선택하게 되었다.

### 제 3 절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COVID-19와 같은 범유행 감염병이 교육 산업 중에서도 사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고자, 현재 사교육 공급자 9명과 사교육 수요자 4명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비확률 표집 방법 중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에 의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견해를 조항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 공급자를 사교육 수요자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는데, 이유는 사교육 수요자 특유의 민감성으로 학습법이나 경제 상황 등 개인적 비밀을 공개하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사교육 공급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점을 둔 제한점은 교육 경력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경력이 최소 15년 이상인 사교육 공급자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단순 교육만 제공하고 있는 공급자가 아닌 교육과 경영을 모두 겸하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교육 공급자인지를 살펴 선정하였다. 이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경영을 겸하고 있다고 함은 원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교육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중간관리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 이후 선정 기준에 운영 형태와 교육 형태의 차별성 여부를 추가하였으며, 주요 교과목 외에도 비교과 수업을 겸하고 있는 공급자도 추가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교육 공급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적극적으로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사교육 수요자 4명을 추가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사교육 공급자 9명과 사교육 수요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인터뷰 시행 전에 연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와 동의를 구했으며,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알파벳 기호로 표기하였으며, 상세 지역과 성별은 표기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공급과 수요로 구분하여 <표 11>과 <표 12>에 각각 정리하였다.

<표 11> 사교육 공급자의 일반적인 특성

| 구분 | 연구 참여자 | 과목    | 공급 형태 | 수업 형태 | 교육 경력 | 운영 경력 | 지역 |
|----|--------|-------|-------|-------|-------|-------|----|
| 공급 | 강사 A   | 영어    | 과외    | 대면    | 20년   | 10년   | 거제 |
|    | 강사 B   | 국어/논술 | 학원/과외 | 대면    | 26년   | 15년   | 대구 |
|    | 강사 C   | 수학    | 과외    | 대면    | 18년   | 7년    | 광주 |
|    | 강사 D   | 과학    | 학원    | 대면    | 20년   | 7년    | 광주 |
|    | 강사 E   | 수학    | 학원/과외 | 대면    | 15년   | 5년    | 광주 |
|    | 강사 F   | 수학    | 학원    | 대면    | 20년   | 11년   | 광주 |
|    | 강사 G   | 수학    | 공부방   | 대면    | 20년   | 8년    | 부천 |
|    | 강사 H   | 수학    | 학원    | 대면    | 24년   | 15년   | 광주 |
|    | 강사 I   | 수학    | 학원    | 대면    | 17년   | 8년    | 광주 |

<표 12> 사교육 수요자의 일반적인 특성

| 구분 | 연구 참여자 | 자녀의 학년 | 교육 시설  | 수업 형태  | 교육 과목  | 지역 |
|----|--------|--------|--------|--------|--------|----|
| 수요 | 학부모 a  | 중3     | 학원     | 대면     | 교과     | 분당 |
|    | 학부모 b  | 고2     | 학원     | 대면     | 교과     | 광주 |
|    | 학부모 c  | 초6     | 학원     | 대면     | 교과/비교과 | 광주 |
|    | 학부모 d  | 초3     | 학원/인터넷 | 대면/비대면 | 교과/비교과 | 수원 |

## 제 4 절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COVID-19에 의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사교육 시장에 어떤 인식 변화를 발생시켰는지 알아보려고 사교육 공급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이며,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사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9명의 사교육 공급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

다.

목적 표집은 특정 현상을 발견하고 해석하여 서술하는 질적 조사에 적합하다(Padgett, 1998). 인구 집단의 일반화를 위한 무작위 표집을 적용하여 확률적 동등함을 부여하는 양적 분석에 비해, 질적 자료 수집은 특별한 현상이나 주제의 경험을 지닌 개인 중 목적에 부합한 대상에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Creswell, 2017). 목적 표집 방법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지녀야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핵심적인 이슈들을 제공할 수 있고, 연구자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Patton, 2014).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사교육 공급자’라는 연구 주제에 맞는 대상을 연구하기에 목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인터뷰 조사 수행의 현실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교육 공급자는 대면 인터뷰를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교육 공급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비대면을 희망하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전화 연결을 하였고, 그 외의 참여자들은 가급적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비구조화 방식을 채택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반구조화 방식을 병행하였다. Maxwell(2012)은 예비 인터뷰에 대해 본 인터뷰 조사 전에 수행할 행동으로 연구자의 이론과 관심에 맞는 인터뷰 방향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행동임을 이야기하였다. 그렇기에 본 인터뷰 조사 전 사교육 강사 두 명을 섭외하여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인터뷰 질문 내용을 조정하였다.

본 인터뷰는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개별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연구 내용을 알린 후 참여의사를 밝힌 사교육 공급자와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연구자가 사교육 공급자가 근무하는 사교육 시설에 방문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주로 교육이 종료되는 시간대를 활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락 하에 강사의 휴무일에 진행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교육 수요자 인터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에 진행된 관계로 전화 인터뷰로 대체하였다. 각 참여자 당 인터뷰 횟수는 1~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개인당 평균 60분 정도 소요되었다.

개별 인터뷰는 비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 시작 전 녹음이 진행됨을 미리 알리고 이해를 구하였다.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에 동의한 참여자이기에 인터뷰 내용과 목적은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익명성과 비밀유지를 약속하였다. 인터뷰 시작과 동시

에 녹음을 시작하였고, 주요 대화 내용의 메모 외에도 언어 이외의 침묵이나 행동, 표정 등 인터뷰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 기록하였다.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으로 참여자의 COVID-19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OVID-19 유행 전과 후의 인식 변화가 나타났는지와 그 변화가 교육 방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 인터뷰 단계에서 구성한 질문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마무리 질문으로 덧붙이고 싶은 의견을 물어본 후 종료하였다. 이야기를 풀어내지 못하는 참여자와 시간이 여의치 않은 참여자에게는 예비 인터뷰에서 구상한 질문지를 통해 반구조화 형식으로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표 13>** 인터뷰 질문지

| 질문 내용      |   |
|------------|---|
| 사교육<br>공급자 | 1. COVID-19 이후 느낀 변화는 무엇인가요?<br>2. COVID-19 이후 운영에 변화가 발생했나요?<br>3. COVID-19 이후 수강생 수의 변화가 나타났나요?<br>4. COVID-19 전과 비교했을 때 수업 방식이 달라졌나요?<br>5. 4번 항목에서 수업 방식이 달라졌다면, COVID-19 종식 이후 그대로 유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 사교육<br>수요자 | 1. 평소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br>2. 현재 자녀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교육 종류를 모두 말해주세요.<br>3. COVID-19 이후 사교육 시설을 중단한 적이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br>4. COVID-19 전과 비교했을 때 사교육 시설의 수업 방식이 달라졌나요?<br>5. 4번 항목에서 수업 방식이 달라졌다면, COVID-19 종식 이후 그대로 유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인터뷰가 종료된 후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녹음된 내용을 바로 전사하였고, 연구자의 현장 메모를 추가 정리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숙독하며 궁금한 부분이 생길 경우 다시 전화 연결을 하여 참여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의견을 물었다. 이렇게 진행된 인터뷰 녹음 파일과 전사본, 현장 메모가 본 연구의 질적 수집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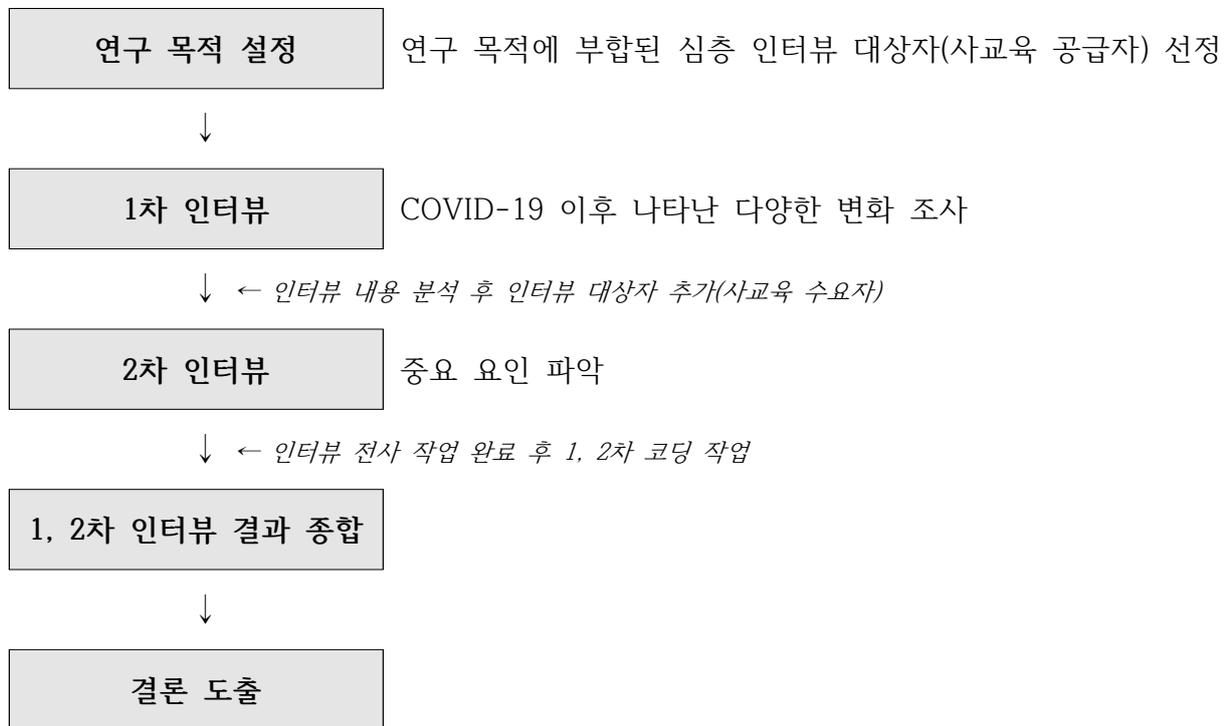
## 제 5 절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의견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심층 인터뷰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비구조 인터뷰를 주축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 반구조 인터뷰 형식을 병행 활용하였고, 연구자가 참여자들과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목적을 설정한 후 주제를 정하였으며, 목적표집을 통한 연구 참여자 9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교육 공급자 중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이며,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사교육 시설을 운영 중인 사교육 공급자들이며, 인터뷰 의향이 있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1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COVID-19의 확산으로 입은 피해 유무와 현장에서 겪은 인식 변화 및 외부적 변화를 비구조 형태 및 개방형 질문으로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공통 질문들이 선별되었으며, 시간이 여의치 않은 참여자에게는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을 추가 채택하여 인터뷰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그리고 2차 인터뷰를 통해 1차 인터뷰에서 부족한 내용을 추가 질문하거나 1차 인터뷰 답변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재차 질문하여 의견의 변동 여부를 파악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수집한 연구 참여자 즉, 사교육 공급자의 인터뷰 답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고자 사교육 수요자 4명을 추가 선정하여 인터뷰를 추가 진행하였다. 인터뷰가 종료된 후 현장 녹음 파일과 메모를 활용해 인터뷰 전 내용의 전사 작업이 빠짐없도록 재차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인터뷰를 통해 사전 녹음한 연구 참여자들의 COVID-19 유행 이후 겪은 교육 변화에 대한 경험과 의견과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듣고 읽으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이를 1차 코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1차 코드화 된 내용을 유사한 맥락을 지닌 묶음으로 재조직하여 2차 코드 작업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중 사교육 공급자의 인터뷰 내용을 우선적으로 코드화하였고, 이후 사교육 수요자의 인터뷰 내용을 지정 코드 범주에 접목시켰다. 연구자의 위치 상 주관성을 배제하고 질적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각 코딩 단계마다 지도 교수님과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코딩 작업을 통해 내용을 함축하고 범주별로 조직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직화 된

내용을 연구 주제에 맞춰 재구성하였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3>은 위 분석 절차를 도표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3> 분석 절차

## 제 4 장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사교육 현장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COVID-19의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 빠른 전파와 감염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사교육 현장의 변화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교실 내에서 간격을 두고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으며, 교육청의 권고로 임시 휴원, 학생 수 제한을 위한 분리 수업, 온라인 강의 진행 등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이 나타났다. 사교육 기관에서의 이러한 대응 방침에 단기적으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쳤으나, 비대면 수업 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휴원 또는 학원을 소규모 학원으로 옮기는 경우와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학생의 경우 인터넷 강의 학습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COVID-19는 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사교육 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자료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 1. 자율학습시간 증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 증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공교육에 등교일수 제한 및 원격수업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 면에서 학생들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업 성취도 격차 문제는 이전부터 문제화되고 있던 내용이었으나, COVID-19 이후 학습 시간 활용의 자율 선택 범위가 커지면서 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분석했다.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의 보호자 환경이며, 보호자 환경은 세부적으로 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경제력, 그리고 일상생활의 관리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보호자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제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부모일수록 사교육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보호자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상승했으며, 비교과 과목 선택 비율

도 높게 나타났다. 즉 지역 또는 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로 사교육에 대한 선택 정도가 달라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성구는 엄마들이 4월쯤 되니까 수업을 다시 했으면 하더라고. 근데 북구는 시작하지 않아도 답답해하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수성구 쪽에서는 역반응이라 해야 하나? 거기는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 수업을 많이 했어요. 일대일 수업 같은 것들. 그리고 큰 대형학원 선생님들은 전체적인 거는 어떤 수업을 했냐면,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온라인 수업으로 챙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적을 중점적으로 올리고 싶은 엄마들은 거의 뭐 1대 1, 1대 2로 이렇게 해갖고 고액으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성구는 오히려 수업 엄마들이 교육비가 더 많이 들었대요.”(강사 B)*

강사 B는 COVID-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 지역의 사교육 공급자로 사교육 공급자 유형 중 유일하게 주요 교과목인 국어 수업과 비교과 수업인 논술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수성구’ 지역과 교육열이 보통 수준인 ‘북구’ 지역 등 2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 지역에 충격을 준 COVID-19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강사 B는 해당 지역 2곳에서 국어와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어 과목은 연계된 학원에서, 논술 과목은 가정에서 그룹 과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논술 수업은 해당 과정을 듣기 위한 대기 학생이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강사이다. 그럼에도 이번 COVID-19를 통해 지역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열의 차이를 확연히 경험하게 됐으며, 내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에 대한 인식 차이를 크게 체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음 그런 상황은 있었죠. 오히려 이런 걸로(코로나를 기회로) 좋은 애(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솔직히 엄마가 모든 과목을 다 학원으로 돌렸어요.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집으로 들였어요. 능력되는 엄마들은... 관리가 오히려 더 돼가지고 좋죠.”(강사 A)*

*“이제는 그 열심히만 해서 되는 시절은 아닌 거 같아요. 예전에도 좀 더 그러긴*

*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빼기를 박는 꼴이 되었죠. 학교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고, 진짜 최소한 인강...? 그 정도는 들어줘야 따라갈 수 있어요. 돈이 진짜 없으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강사 C)*

외부 여건에 의해 공교육이 단절된 경우, 교육의 품질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품질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이란 부모의 교육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식과 그 생각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경제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학생의 역량에 따라 학업성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근본적 배경에는 보호자의 경제력과 교육적 의식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희는 5층이라서 그렇지. 저희 학원 3층은 저학년이나 처음 등록한 자녀들이 가요.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중에 못하는 애들. 개네들이 3층으로 배정되는데, 거기 애들이 코로나 터지고 초반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쉬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오고, 다시 또 안 좋으면 쉬게 하세요.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높은 엄마들은 수학뿐만 아니라 그냥 국어든 영어든 뭐 과학이든 학원을 빼지 않으셨던데? 오히려 더 다니시지. 그래서 5층 선생님들은 타격이 없었는데, 3층 선생님들은 타격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3층은 못하고, 저학년이고, 초등학생들이고. 근데 저학년, 초등학생들도 잘하는 애들은 어머님들이 그대로 보내세요.”(강사 E)*

강사 E가 종사하고 있는 사교육 시설은 한 건물의 3층과 5층에서 동시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층별로 겨냥하는 핵심 교육 층이 다르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강사 E가 소속된 5층은 사교육 학업 수준이 높고, 특목고를 대비하는 중학생과 입시를 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주 대상이라면, 3층은 초등학생과 학업 수준이 높지 않은 신규 중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층 구성원들의 학업 성취도가 확연히 다르다. 강사 E의 경험적 의견은 COVID-19 이후 학업 성취도 수준 차이에 의해 사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차이도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학원은 지금 영어하고 수학하고 국어하고 피아노하고 4개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원어민 화상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내 못하다가 지난 9월부터 토요일마다 주민센터에서 역사, 세계사 수업하는 거 하나 있고. 코로나가 무섭지. 그러긴 한데 실은 나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거는 걸리며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나도 집 말고 사회생활을 하고, 남편도 사회생활을 하니깐 누가 어디서 묻혀서 올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게 꼭꼭 막는다고 백 퍼센트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거니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개인위생 수칙이나 최대한 지키면서... 걸리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지. 완벽한 방역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학부모 a)

학부모 a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COVID-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원하는 사교육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COVID-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을 배제하기보다는 개인 방역에 신경 써서 사교육을 계속 유지하려는 교육적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사교육 중단 의사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저는 수업을 그냥 일반 학생이 아니라 잘하는 영재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 교습법에 변화가 일어났죠. 영재들이고 가정환경이 좋기 때문에 펜 기능이 있는 노트북, 즉 태블릿 기능이 있는 노트북을 애들이 샀어요. 한 200만 원 하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앞으로 교육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큰일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잘하는 학생들은 방금 말한 원격의 현장 강의같은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질과 양을 갖는 교육기회를 엄청나게 가져요. 사교육에서 혜택을 엄청 누립니다. 그것을 이 사회가 지금 격변적인 변화. 즉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는데, 사회의 교육제도와 인식이 그 속도를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변하는 시대에 더 교육을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일반 학생들에 비해 잘하는 학생들은 그 격차가 엄청 벌어져요. 계층별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심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나도 거기 일조하고 살고 있지만, 이것을 빨리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강사 F)

강사 F는 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COVID-19 발생 이전에도 원격 화상 강의를 병행하는 등 새로운 교수법 연구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교육 공급자이다. 강사 F는 이전에도 다양한 교육 방식을 시도하며, 학부모의 협조를 요청했었으나, 이번 COVID-19 발생 이후처럼 적극적인 투자와 협조를 해 준 적이 없었다며, 자녀의 학업 성취를 위한 부모의 과감한 투자 상황이 과거와 다르며, 또 일반 교육 과정 학생들과도 확연히 차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강사 F와의 인터뷰 내용은 ‘부모의 과감한 사교육 투자로 인해 질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는 속도를 교육 제도와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은 학생이 학업 성취를 얻었다면 이미 사교육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의 시기에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유무는 계층별 갈등 심화를 가져오는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은 생계 등에 의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에 비해 자녀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김영희, 2002). 또한,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미치는 영향력은 자녀의 학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 (2) 학생의 자발성에 의한 학업성취도 차이

자발적 학습 태도 또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자발적 학습 태도는 학생의 간곡한 의지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학습 태도 및 교육 가치관으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COVID-19의 매우 빠른 확산 속도로 인해 공교육은 원격수업으로 대체되었고, 강제성을 잃은 학생들은 일종의 방임 상태가 되었으며, 통제가 없는 부실한 학습 환경 및 부족한 학업 의지로 인해 학습 부진아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공부를) 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의 차이가 더 심해진 거? 그게 가장 크죠? 하는 애들한테는 위기가 기회고, 못하는 애들한테는 아예 그냥 포기고…. 따라올 수 없는 그 갭이 너무 커졌지…. 이번에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은 코로나까지 겹쳐버려서…. 학교 학습은 아예 그냥 일년 버렸어요. 애네들이 학교에 가서 그나마 시험이라도 봐야 하는데, 시험을 안 보고, 듣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것도 없고. 이제 그게 심해졌죠. 그냥 아예 이렇게 1년을 놓아버렸는데 하고 싶  
 겠어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조금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집에서 안 하  
 고 학교에서도 안 하니까…. 왜냐하면 학원을 오는 애들은 어쨌든 간에 학교 공  
 부를 하려고 오는 애들이거든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안 할려고 하는 애들은  
 코로나 터지자마자 그만뒀어요.”(강사 A)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이게 터짐으로 인해서, 애들  
 이 양극화된 거는 아마 분명히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코로나가 계기가 됐죠. 안 하는 애들은 진짜 안하게 됐죠. 근  
 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애들은 학교에서도 교육이 안 되니까 학습태  
 도까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밑에 바닥에 있는 애들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럴 상황이 될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강사 A)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본인  
 들이 특강을 만들어달라고 해요. 수업을 더 원하던데? 그래서 제가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주중에 제가 추가로 한 수업은 고등학교 애들이 수업을 만들  
 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 수요가 좀 있었어요.” (강사 E)

강사 A는 주요 교과목인 영어를 가정에서 그룹 과외 형태로 수업하고 있는 사교육  
 공급자이며,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수요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단순 공급  
 자의 입장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COVID-19 발생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으며, 기  
 존의 교육 환경이 무너진 경우 학생의 학업 의지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것을 우  
 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급자 입장에서 느낀 학생 수의 변화에서도 평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학교의 부족한 학업을 사교육으로 보충하고자 수업량을  
 더 늘린 것에 비해, 평소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수업을 받으러 다녔던 학생의  
 경우에는 COVID-19를 핑계로 바로 그만두었다고 하였다. 이미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른 학업 성취도 양극화 현상은 COVID-19 발생 이전부터 교육계에서 여러 차례 언  
 급되어 오던 항목이다.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평가가 진행되지 않기에 평소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추게 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  
 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월등히 높았다.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입시 성

공 조건이다’라는 말처럼 극명한 학업성취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미 진행 중인 이러한 문제는 COVID-19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강사 A는 심각하게 이야기하였다. 강사 E 또한 학업 의지가 높은 학생일수록 COVID-19로 학교 수업 시간 감소로 줄어든 학습량을 보충하기 위한 욕구가 더 강했으며, 위기를 기회 삼아서 더 발전하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학생의 자발적 학습 태도는 근본적으로는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온 교육 환경에 의한 것이다. 결국은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보호자의 환경이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 (3) 학업 절대량 감소와 증가한 여유 시간 활용에 선택된 사교육

COVID-19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공교육은 개학을 연기하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량의 감소로, 학업에 대한 절대량의 감소를 체감하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고자 절대적 학습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교육을 선택하였다. 더 나아가 ‘위기가 기회다.’라는 의식을 가진 일부 학부모들은 평소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충 또는 선행 학습을 자녀에게 제공하였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서 고등학생도 인제 빨리 부르면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학교를 제대로 안 나가니까 이전보다 일을 되게 빨리 시작해 버리잖아요. 예전 같으면 학교가 끝나야 수업이 시작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부터 바로 수업을 해버리니까... 제가 특수한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내 아이 케어가 안 되니까 심경이 복잡해요.”(강사 A)

“저는 수업할 때 좋은 점이 있었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수업에 더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덜 피곤하니까? 그리고 수업을 더 해주라는 부모님도 계셔가지고, 학교 안 가니까. 그래서 학생 수가 는게 아니라 수업 시수가 늘었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공부량도 그렇고, 그만큼 더 수업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게다가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확실히 덜 피곤해해요.”(강사 C)

“우리 강사들끼리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양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학교를

가면 수업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라고 하는 시간에 애들이 와지는 거야.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이라 애들이 제일 먼저 끝는 게 예체능이야. 그래서 그 예체능을 안 가잖아? 그러니까 다른 학원과 중복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 나는 솔직히 속으로 그랬어. “어? 코로나 이 상황이 나한테는 더 편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 수업이 너무 딱딱. 일찍 제 시간에 딱딱 끝나. 그래서 나한테는 오히려 코로나가(웃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답답한 구석은 있지만 아이들을 순전히 가르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편했어.”(강사 G)

위 인터뷰 내용처럼 일부 사교육 공급자 입장에서는 COVID-19가 부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공교육 축소 상황으로 인해 수업량이 증가하였으며, 공교육의 부재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은 COVID-19가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로 보고 있었다.

“지금 코로나 초기에는 ‘온라인을 하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이게 할 놈들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80% 이상의 아이들은 관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학원을 어쨌든 보내놓으면 거기서 선생이 알아서 다 해 준다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 ... 종락 ... 애가 집에 있는 게(아무 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 00이랑 이미 이걸로 한판 했잖아. 이렇거면 공부 때려치라고. 나라면 이렇게 안할 것 같은데... 그냥 학원 시간 돼 가지고 나가버리면 학원에서 즐기고 있던 월하고 있던, 멍 때리고 있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학원 보내는 게 제일 편한 거 같애. 공부하는 분위기 안에서 다른 애들과 같이. 러닝메이트 역할을 해주는 그게 필요한 거지. 사실 ‘지식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음 그러니까 난 코로나와 관계없이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봐” (학부모 a)

“근데 우리 아들은 이번에 영어는 올랐어. 생각해보니까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 다른 데 신경도 쓸 일도 없고. 하루에 단어를 250개 정도 외운다니까? 이번에 알았던 게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딱 데 신경을 안 쓰니까 체력 상승이라. 그래 가지고 하루에 단어를 막 200~250개씩 외우고. 처음으로 영어 1등급 쳤다니

까?!”(학부모 b)

사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a와 학부모 b의 인터뷰 내용은 사교육 공급자의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난 사교육 의존도 증가 현상에 주목해 보았다. 수요자들 또한 공교육의 부재로 부족해진 학업량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수요자들의 사교육 의존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교육 방식이나 절대적 학업량에 의해 학업 성취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교육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기에, COVID-19로 인한 공교육 축소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1하고 중2는 아직 피해가 드러나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고3 애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물론 저도 고3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래도 사교육으로 과외를 하니깐... 돈 있는 집 애들은 다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고3은 사교육 양에 따라서 수능 당락이 결정될 것 같아요.”(강사 E)

고학년일수록 사교육 양에 따라 수능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사교육 공급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 절대적 학업량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다는 보편적 사고가 ‘4당 5락’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처럼 사교육 수요자들은 어쩌면 절대적 학업량을 채우기 위해 공교육이 제한된 상황을 사교육으로 보충하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 2.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와 사교육 선택의 갈등

COVID-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전 세계인에게 공포로 다가오면서 사교육 선택에 대한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로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면역 체계가 약함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대인 접촉이 많은 야외활동과 사교육의 중단을 선택하였고, 일부 학부모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대면 상황을 차단하고자 온라인 학습으로 사교육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COVID-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 다시 사교육을 선택하거나, 가정 여건상 사교육 시설을 선택하

며 심적 갈등을 겪는 학부모도 있었다. 사교육을 선택하는 경우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교육 시설을 선택하거나, 시설 방역 유무를 파악하여 사교육 시설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보다 자녀의 학업 성취가 낮아지는 상황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사교육 선택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는 개인 방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적 갈등을 억제하였다.

### (1) 학교급 및 과목에 따른 사교육 선택 여부

COVID-19의 강력한 전파력은 무분별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감염을 막는 가장 최선의 책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교육 수요자들은 교과목의 중요도에 따라 사교육 선택에 차별화를 두었다. 주요 교과는 선택하였고, 흔히 비교과라 불리는 입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목은 과감히 중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직 치열한 입시 전쟁의 영역에 들어 서지 않은 저학년의 경우는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2월 19일 그날. 뉴스 보면서 수업을 중단했어요. 바로!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애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만두고. 엄마들하고 의논해서. 처음에는 그냥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잠시 휴강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휴강인 상태가 초등학생은 거의 80%예요. 80%가 그냥 지금까지 휴강”(강사 B)*

*“과목의 특성상 조금 다르더라고요. 가장 타격이 큰 거는 운동하는 거. 아마 태권도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학원들은 거의 타격이 지금까지도 있고, 다음 미술 학원. 그니까 예체능이죠? 미술, 피아노, 태권도 이런 예체능 학원은 거의 초등부 엄마들 위주라 안 보내고 있거든요. 아직도 어차피 애들끼리 대면해야 되고 또 서로 부딪혀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타격이 큰 게 제가 하는 논술 쪽이 아니겠나 싶어요. 논술도 서로 토론 수업해야 되니까 엄마들이 조금 거리는 것 같고. 게다가 논술은 바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니까 엄마들이 책을 집에서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토론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이게 말하는 거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어쨌든 중·고등부들은 국어 과목을 5월에 바로 시작을 했어요.”(강사 B)

“그러게 근데 나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는 해야 된다면 나는 안 보낼 것 같애. 왜냐면 애들이 온라인으로 하면은 어찌됐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뭐 수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학원이 숙제를 지키고 그거 검사하고 진도 빼고 이런 거잖아. 교과 과목들은 그런 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애들도 하게 되는 건데 비교과는 진짜 뭐 그냥 애가 집중도 떨어지면 아예 다니는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비교과 쪽은 그 돈을 내면서 보내진 않을 거 같고.”(학부모 a)

강사 B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들이 비교과에 대한 사교육 선택을 배제하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현상은 자녀가 저학년일수록 더 강한 배제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은, 학부모 a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 a는 중요도가 높은 과목은 대형 학원을 선택하여 보냈고, 상황에 맞춰 학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에도 거부감 없이 참여시키고 있었으나, 비교과 과목의 사교육 참여에 대해서는 기피 심리를 드러냈다. 비교과 과목을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참여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비교과 과목을 굳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의 사교육에 참여시키고 싶지 않음을 밝혔다. 비교과의 사교육 필요성이 감염에 대한 위험 부담을 이겨낼 만큼 크지 않기에, 사교육 중단에 대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초중생 수업을 하잖아. 근데 이제 중학생 고학년이 되거나 고등학생 엄마들은 대안이 없어. 중학교 3학년이 되거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면, 외부 강의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특히 고등학생들은 이런 작은 곳보다는 더 큰 대형학원 강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떻게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스스로 위생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 인식시키면서 나가는 거 같애 보니까. 집에서 한다는 게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엄청 똑똑한 애들은 집에서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학

원을 보내는 거지. 대안이 없잖아.”(강사 G)

“우리 아들은 영어하고 수학만 다녀. 영어는 1:1로 수업하고 있어. 그리고 수학은 한 반에 여덟 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수학은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영어는 오르고 있고, 나머지 과목은 중간이야. 동영상 강의도 안 듣고. 다른 과목도 사교육은 전혀 안하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1도 없어. 그래서 학원을 가서 거기서 그래도 공부를 하고 와야 돼. 안 그러면은 성적이 답이 없어. 그래도 학원은 꾸준히 다니고, 학원에서 숙제까지 하고 오니까. 그게 다행이지.”(학부모 a)

“중요도가 떨어지는 학원은 다 뺐고, 이번에 이사 간 곳에 마땅한 학원도 없고, 마침 코로나도 터지고 해서 인터넷 강의로 전환을 했어. 나는 그게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해. 주변에 엄마들은 코로나로 1~2주만 쉬었다가 학원 보낸다고 말 놓고 있다가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원을 한 달 넘게 못 보내고,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하니까 뒤늦게 멘붕이 와서…. 난리도 아니었어. 우리는 미리 인터넷 강의로 선수학습 차분히 진행하고. 근데 태권도는 못 뺐어. 어쨌든 영어학원은 계속 보내거든. 태권도 학원에서 픽업하고 데려다주고 애를 맡아주니까…. 다행인건 아직까지 태권도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단 뉴스를 본 적이 없어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중단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그래도 방역하고 다시 보내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맞벌인데….”(학부모 d)

강사 G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녀가 사교육을 중단할 경우에 가정에서 부모가 공부 내용을 가르쳐 주거나, 학업 전반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학부모 a 또한 감염에 대한 우려보다 고등학생 자녀가 학원에 가지 않는 상황을 더 걱정하였다. 사교육을 시키는 과목 수는 주변에 비해 적게 하고 있지만, 영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사교육은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학부모 d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 수학, 코딩, 미술, 태권도, 학습지까지 다양한 사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교육 수요자이며,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고,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참여자이다. 이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이사를 가게 된 지역의 사교육 시설이 미흡한 것이며, 맞벌이 부부이기에 자녀 픽업 가능 여부

가 사교육 선택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이사 후 거리와 픽업 문제, COVID-19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학습을 선택하며 갈등을 겪었으나, 이내 자녀 수준에 맞춰 원하는 학습 설계를 한 후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 경우이다. 그럼에도 중요도가 높은 영어학원은 포기하지 못하고 꾸준히 보내고 있으며, 영어학원에 보내기 위한 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권도 학원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교육 수요자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저변에 깔려 있어도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입시경쟁에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내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교육 수준에 맞는 가정 관리가 힘든 경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주요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 선택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였다. 이는 절대적 학습량 부족에 따른 사교육 의존도 증가와 비슷한 맥락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져 입시경쟁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저변에 상존해서 나온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 감염 불안감에 의한 사교육 시설 선택

COVID-19는 낯선 이에 대한 거부감을 극대화시켰다. 사교육 선택에 대한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교육 수요자들은 사교육 선택 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사교육 시설을 선택하였다. 또한 주변 정보를 취합하여, 시설 방역 여부를 파악하여 안심할 수 있는 사교육 시설로 이동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저는 개인과외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딱히 개인 과외에 대해서는 학원 보내는 거에 비해서 걱정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학원은 쉬더라도, 과외는 그냥 보내는? 그러셔가지고 과외는 딱히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저는 똑같았어요. 수업 방식도 바뀐 것 없고…. 있는 애들 그대로. 대신 수업만 늘렸어요.”(강사 C)*

*“나는 제일 많을 때는 여덟 명까지 수업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가 딱 생기고 나서 내가 인원을 조정했지. 최대 5명으로. 긴 테이블에 한 명씩 앉게 했고, 최대한 애들이 좀 넓게 떨어져 앉고 그 다음에 칸막이도 했고. 아이들까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돼서 엄마들은 여기를 보내*

는데 있어서 크게 겁내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진 것 같애. 나는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신입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 일단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안 나가. 기존에 있던 아이들 엄마들은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환경을 알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살고 있는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일단 없고, 외부 학원에 보내자니 겁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가정집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는 거지.”(강사 G)

“코로나 이후 타격은 없었지. 대신 매일 시설 방역을 하면서 엄마들에게 방역 관련 상담을 했는데, 학생이 늘었어. 다른 학원 다니다가 코로나 터지고 쉬던 애들 또는 다른 학원을 다니고는 있는데 검사검사 다른 데도 한 번 알아보을까 하던 애들이 상담하러 와서 오히려 학생이 더 늘었어. 안 그래도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니까, 요즘 방역도 철저하 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동네에서 오래 봐와서 학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강사 H)

이처럼 COVID-19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부감을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가 형성된 사교육 공급자와 시설을 선택하게 하였다.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교육 수요자들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대형 학원보다 이용자의 동선 파악이 용이한 시설을 선호하였고, 내실 있는 개인 과외를 제공하고 있는 사교육 공급자와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소규모 사교육 시설을 찾았기 때문에 COVID-19 이후에도 사교육 시장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상황은 다른 요인과의 복합적 현상으로 판단되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상황 파악이 용이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규모 사교육 시설을 이용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 (3) 질병보다 더 무서운 입시 경쟁

COVID-19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교육 시설 또한 임시 휴원 및 인원 제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과 상관 없이 사교육이 COVID-19 이전과 같이 진행되는 사교육 시설이 상당수 존재했다.

“중3 엄마들은 정작 급하니까 코로나든 뭐든 하든가 말든가 제가 오라고 하면

그냥 다 왔어요. (웃음) 저도 이번에 좀 느낀 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마스크 끼고, 소독 다하고 이런 상황에도 애들이 결국 오는 거 보면... 질병하고 전쟁이 엄마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좀 놀랐어요. 진짜 이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질병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도 그냥 엄마가 보낸 게 아니라 애들도 그냥 당연히 오는 줄 알고 그냥 다 왔어요.”(강사 E)

전쟁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대한 열의는 대한민국을 사교육 열풍으로 몰고 간 원인이다. 사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이나 언제 감염될지 모를 질병보다 자녀의 학업 성취도 하락이 더 무서운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입시경쟁은 치열하다. COVID-19로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감염에 대한 불안감보다 더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 진다. 그럴기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함에 주저함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COVID-19로 남들이 우왕좌왕할 때, 공교육 축소로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사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행보가 우리나라 입시경쟁의 현실이다.

### 3.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 전환을 위한 원격수업 도입

COVID-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사교육 시설은 뜻하지 않게 비대면 수업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원격수업은 소규모 시설보다는 대규모 시설에서, 지역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할수록 더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 (1) 새로운 교육 방식의 도입 계기가 된 COVID-19

2008년 이전부터 e-러닝, u-러닝 등 최첨단 학습법이 알려지고 시행되었으나, 이는 특수한 상황이나 시범적 운영으로 끝날 뿐, 공교육과 사교육을 제공하는 공급자들은 새로운 교육 방식보다는 이미 익숙한 과거의 방식을 유지할 뿐이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온라인 화상 수업은 불가피해졌고, 교육산업 전반에 걸친 새로운 교육 방식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전국적 도입 및 시행되었다. 이는 너무나도 급작스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행되어야 했기에 온라인 화상 수업은 강제적으로 국민들

의 일상에 정착하였다.

“미래형의 수업이지 그거는. 왜 그거를 차츰 차츰 준비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그 순간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상황이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 해도 좋지만, 그런 수업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와서 거기(인터넷 화상) 수업의 질에 못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손이 가는 애들은 또 이렇게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요.”(강사 A)

“이번에 내가 느꼈던 거는 그 영상 수업을... 솔직히 전에는 선생님들이 뽕방으로 찍었거든요? 아무리 대표님이 말해도 개선이 안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좀 더 퀄리티 좋게 찍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적응해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인터넷 수업과 영상 수업에 적응이 되어서, 만족도가 높아요. 너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다 이해가 갔다는 거예요. 애들이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댓글을 실시간으로 달아줬던 말이야.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으로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학원을 나와야 하느냐? 그러면서 그만둔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 변화는 교육방식 변화가 제일 크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느끼긴 한 것 같아요. 그걸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강사 D)

“그러면 원격수업을 할 때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쌍방향 필기가 가능해요. 나도 필기가 가능하고, 학생들도 필기가 가능해서 입체적인 수업 전개가 가능해요. 그 교사의 자질에 따라서. 또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그냥 표면적인 강의 수업이 아니라 원격 안에서는 소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모둠보다 강한 모둠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사이버 공간의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강사 F)

“지금 대구는 코로나가 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두 개를 병행을 해요. 일주일에 원래 두 번 하게 되면, 한 번은 와서 피드백 위주로 하고, 한 번은 집

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걸 동시에 지금 다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다시 벌어질지... 이제 벌써 준비하는 거죠. 제가 기계치다 보니까 저는 아직...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배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강사 B)

많은 사교육 공급자들이 사회적 요구에 의해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COVID-19로 인한 운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e-러닝을 넘어 u-러닝 학습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권장되는 교습 방법으로 나타났고, 원격수업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입체적 수업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VID-19가 보수적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적응력이 빠른 학생들은 교육 공급 주체보다도 더 빠르게 영상 수업에 적응해 나갔고, 사교육 공급자는 새로운 교육 방식 즉, 온라인 화상 강의 준비를 빠르게 진행했다.

“나는 애써서 이제까지... (자녀에게) 미디어에 접촉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무너져버렸어요. 이런 거에... TV, 컴퓨터, 핸드폰! 핸드폰은 진짜...!(흥분)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준거야. 컴퓨터는 지켜볼 수 있는데, 핸드폰은 제어가 안 되니까! 근데 애들한테 안 보여 줄 수도 없는 게 학교도 안 가, 아침부터 일어나 할 일도 없어, 학교 수업도 접속해야 해... 이제까지 그런 엄마들도 많을 거예요. 일부러 안 보여준 엄마들도 많거든. 최대한 미디어 접촉을 안 하게 할려고...”(강사 A)

COVID-19로 인한 새로운 교육 방식의 도입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강사 A는 사교육 공급자이면서도 사교육 수요자의 입장에 있다. A는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COVID-19는 그동안 통제하고 있던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 기기를 접하게 하는 나쁜 환경으로 간주했다. 어리거나,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접촉이 장기화되면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스마트 기기 노출에 대한 관리 또한 좋은 환경적 요인을 갖춘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이기에 때문에 환경적 격차로 인한 학업성취도 차이가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 (2) 사교육 수업 방식 선택에 대한 다양성 제공

COVID-19 발생 이전에는 무조건 대면 수업이 최상의 교육 방식이라 판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듯 온라인 수업보다는 학원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학원보다는 고액 과외 수업의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COVID-19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나 병행이 이뤄지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학습 참여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초창기에는 온라인 수업 반, 대면 수업 반. 반반! 그런데 저는 온라인 수업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논술은 전반적으로 수업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6~7월이 넘어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국어라는 과목은 급했지만, 논술이라는 과목은 아무래도 급한 과목도 아니고, 또 토론하면 이렇게 침도 튀고 하니까. 애들이 마스크 끼고 와서 토론 수업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깐 안 했고, 그 다음에 논술 선생님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선생님 계셨어요. 그분들은 5월부터 수업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강사 B)

“수업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하나면. 온라인 수업하면 동시에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싶으면 듣고요. 동시에 되는 거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애는 온라인 듣고, 와서 듣고 싶은 애는 와서 듣고.”(강사 B)

“다양한 교육매개체가 중요해요. 다양한 교육 매개체를 갖는 입장에서 보면 원격에서 하는 것들이 애들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친화적이에요. 마치 예전에 먹이랑 붓으로 썼던 것을 우리가 펜으로 쓴 것처럼. 개네들은 기본적으로 전자책, 전자 필기, 그것을 폴더 정리 정돈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고. 지금도 PDF에 필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종이로 하는 학습보다 잘하는 학생은 잘하죠. 코로나가 종식이 되도 이런 수업을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유지돼요.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계속하니까 다양한 교육매체가 중요해요.”(강사 F)

이처럼 비대면 수업으로 공교육 및 사교육에서도 온라인 원격 화상 강의가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교과 및 비교과 수업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교과

중요도에 따라 사교육 선택에 차별성이 있지만, 대면으로 모집할 수 없는 수요자를 온라인 수업을 통해 확보하고 이탈 방지를 유도하는 것이다. COVID-19가 불러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교육 공급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다양화시켰다. 임시방편으로 시도했지만, 그동안 변함없이 대면 수업을 고수했던 사교육 방식이 어느덧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 수업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매체의 선택도 가능해졌다. 다양한 교육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적응력과 이해도 측면에서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제약에서 벗어나게 한 COVID-19

COVID-19가 전 세계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교육 관계자로서 COVID-19가 가져온 변화는 단연컨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선생님들도 그냥 막 진도를 빼 버렸어요. 선생님들 지금 종강 날에 대해서 부담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여유롭게 진도를 나가 버려가지고. 어찌 보면 온라인 수업? 아니 동영상 강의 촬영 자체가. 시간 제약이 사라져 버렸네요. 시간 공간 제약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 (10초 생각에 잠긴 후) 진짜 시간이 훨씬 클 것 같아요. 해 보면서 느낀 점이 나도 최근 진도가 많이 느렸었거든요. 근데 영상 수업을 하니까 진도를 따라 잡았어요.”*  
(강사 D)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의 장점과 대본처럼 쓰여진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엄연히 다르다. 온라인 화상 강의는 쌍방향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수업처럼 정해진 시간 동안 수업 진도를 맞춰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는 강사의 수업 준비량에 따라 함축적 수업이 가능하기에 시간의 효율성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 강사 D는 대형 학원에서 강사의 역할과 강사 관리 및 교무 일정을 총괄하고 있는 운영진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강사들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파악했을 때, 강사들이 자료 준비부터 촬영까지 일반 수업의 2배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였기에 시간적 손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학생 진도 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수업 시간과 수업 일정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였다. 촬영한 동영상 수업 시간에 대해 학생들은 그냥 수긍하고 수용하기 때문이다.

“과학고 2학년 애들 중에 집이 천안이나 대전인 애들도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주입식 교육은 원격으로 보강이 되는데, 토의 토론 형태는 보통 현장을 와야 하니까. 완전 원격수업만은 못하죠. 각 장단점이 있으니 2가지 형태를 병행해야죠.” (강사 F)

“또 원격 강의 장점으로는 원래도 O노트로 애들이 집에서 질문하면 답변을 해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태블릿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수시로 질문이 들어와요. 원래 제가 늦게까지 깨어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도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주고, 애들 입장에서는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강사 F)

강사 F는 광주광역시에서 영재들을 교육하는 수학 강사로 광주 과학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광주 과학고에서는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광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F 강사의 수업을 현장으로 들으러 올 수 있었으나, 타 지역의 학생들은 대안을 찾을 수 없었지만, 원격 화상 수업 진행으로 광주 지역의 수업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것이다. 물론 F 강사는 대면,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을 꼼꼼히, 수업 방식을 선택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어, 동종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한 강사 F는 원격 강의를 통해 제도적 제약이 있었던 시간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오후 10시 이후에 불가능했던 사교육 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COVID-19가 사교육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게 한 도구로 작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례이다.

#### (4) 자·타의에 의한 사교육 공급자의 교육 역량 강화 요구

COVID-19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교육

공급자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선생님들이 다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감염병)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형태로 좀 바뀌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구요. ... (중략) ... 이제 수업 자체가 서로 같은 공간에서 만나지 않을 거라지만, 인터넷 상에 만나서 이제 상호(쌍방향)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엄마들이 앓아 갖고 누구는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수업을 발전시키려면 선생님들이 좀 연구 수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사 B)

“시간이... 학원에서는 그냥 80분 수업 들으면 그냥 80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밖에 안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글을 정리하고 또 듣고 정리하고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 시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수업 준비를...”(강사 D)

강사 B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우, 인터넷 수업 형태로 사교육을 전환하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이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평소와 다른 수업 준비 등을 인터넷 수업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었는데, 사교육 공급자인 강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교육 공급자가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체감하고 있다. 사교육 공급자는 향후 제공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업 연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영상 수업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수업 자체가 힘들어졌지. 그냥 마스크 끼고 수업해야 되니까. 자리 배치라든지 인원수 제한해서 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운영적인 부분은 분명히 훨씬 더 불편해졌지. 방역도 해야 되지, 방역 청소한 뒤 ‘방역도 했다’라는 증빙 사진도 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보내줘야 되지. 뭐 그런 게 힘들어졌지. 원래 안 하던 거. 대신 그런 거라도 하니까 전보다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횟수는 분명 늘었지?

*그래서인지 어째 학생 수가 좀 늘었네?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근데 운영하는 입장이나, 수업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지.” (강사 H)*

강사 H는 수업의 측면만이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COVID-19에 의해 방역 및 청소 등 평소보다 청결 관련 업무가 늘었으며,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불편함에 대해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방역 이후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관리하고 있다는 신뢰감과 상담의 증가가 가져온 결실이라고 얘기했다. 강사로서의 역량보다는 평소 미흡했던 상담의 증가로 발생한 이익이기에 사교육 공급자는 운영자로서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 4. 연구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변화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 속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교육 공급자들이게 나타난 변화 중, 학업과 관계되지 않은 부분의 변화도 정리해 보았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숫자가 확 줄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쉬다가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자르고 싶은 애들은 연락을 안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 나오세요.’ 란 말이 쉽지 않거든요. 엄마한테 관계상 정리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애가 그냥 그만뒀 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쉬고, 근데 거기서 다시 연락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선생님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관계 정리하기 딱 좋았어요. 그런 관계 정리에 핑계가 된 거예요.”(강사 A)*

이제 우리는 COVID-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중이며, COVID-19와 같은 또 다른 범유행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COVID-19를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 정리의 도구로 활용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은 그냥 같이 바로 바로 피드백도 되고, 실시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공간의 문제도 해소되겠죠? 선생님들이 뭐 공간 필요 없이 자기 집에 방만*

들어서 수업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비용들을 또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책상 같은 거 기자재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요?”(강사 B)

온라인 강의로 인해 사교육 산업도 바뀔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COVID-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온라인 교육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없애버렸다. 이에 큰 공간을 필요로 했던 대형 학원의 축소가 예상된다. 단체 시설과 관련된 산업 물품의 축소와 개인 학습 공간과 관련 있는 산업 물품의 발전을 예측할 수도 있다.

“진짜 저는 우스개소리로~ 오히려 화장 안하고 다녀서 제일 좋다는 거? 또 화장을 안 하고 마스크를 끼다 보니 옷도! 옷이 마스크를 껴는데 정장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마스크에 맞춰서 좀 옷도 편하게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살 돈 안 들고? 옷도 좀 안 사게 되고? 그리고 가방도? 그래서 참 올해는 뭐를 안 사게 되더라고요. 또 예전에는 먹는 재미도 있었지만, 제가 1년에 (학생에게 제공하는) 간식비도 엄청 들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 수업료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 대신에 나가지 않는 비용이 뭐냐 하면, 화장품이나 옷이나 간식 비용.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줄어들더라고요.”(강사 B)

강사 B는 COVID-19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기타 운영비 외에 품위 유지비가 감소하여 생활적으로 큰 타격이 없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는 마스크 착용이 품위 유지비 감소 효과를 동반한 것으로 COVID-19가 발생시킨 걸치레 감소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COVID-19로 인한 사교육 시설 운영비 항목 중 방역에 의한 소독제 구입 등은 지출 증가 효과로 볼 수 있다.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COVID-19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거의 모든 분야에 COVID-19는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계는 가장 큰 변화를 받은 분야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COVID-19가 사교육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고, 이는 사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로 나타났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번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COVID-19가 미친 영향 중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향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서 사교육을 지속한 학생과 사교육을 중단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는 평가이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서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무엇 인지를 찾아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나,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학생들이 수용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것인가’는 고민해 볼 문제이다. 특히 상급 학교로 진학한 1학년의 경우에 학교에 적응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과 같으며,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익히고,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숙지할 겨를도 없이 비대면 상황에서 원격수업에 노출된다면 자기주도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습부진아를 양산해내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서라도 학업을 유지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들은 교육이 기대하는 학업성취도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교육에서 수요 자체가 급격히 감소한 과목은 대신에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 비교과 영역이며, 해당 영역의 사교육 기관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태이다. 초기 COVID-19에 의해 지역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대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 감소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하자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와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경쟁 심리가 작용하여 주요 교과목의 사교육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교육 공급자들에게 현 상황은 위기로 인식되었으며, 수요자의 심적 변화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해 COVID-19 유행 전과 다른 행동 양상을 보여주었다. 사교육 기관은 외적으로는 방역과 청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

며, 사회적 위기 상황에 빠른 대응으로 작은 단위의 사교육 기관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원격수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하고 양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내적으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상담을 진행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친밀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교과목일수록, 학부모가 학습을 관리하기 어려운 고학년일수록 사교육 의존도는 높게 나타났다. 부모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교육을 꾸준히 유지할 의향을 상당히 높게 피력했으며, 제도적 제제가 아니면 사교육을 중단할 의향은 매우 낮았다. 감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주요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중단시킬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 않았고, 사교육 기관에서 방역에 힘쓰는 모습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교육의 신뢰도는 상승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범유행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행동 변화로 나타나진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은 가능하게 한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형 학원보다는 신뢰감이 형성된 과외 또는 교습소의 선택이 COVID-19 확산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과외 또는 교습소의 경우 학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미미하였다. 사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심리는 사교육 공급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 공급자들은 결국 수요자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시설 방역을 실시하고, 비대면 수업을 위한 새로운 수업 방식의 연구와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COVID-19와 같은 거대한 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그룹 형태의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교육 공급자들은 COVID-19로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감사하였고, 타격을 받지 않았기에 교육 방법의 변화는 시도할 의향이 없었다. 이러한 사교육 공급자의 태도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현상 유지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교육 시장 내에서 나타난 교육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식하고 있으며, 일부 공급자는 원격수업에 대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COVID-19가 사교육 시장에 미친 변화 중의 하나는 사교육 공급자들에게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제한 것이다. 그동안 사교육계는 과외의 전면 허용과 함께 등장한 대형 학원과 마찬가지로 COVID-19 유행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교육 방식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는 ‘스마트 영어’와 ‘수학의 ㅈㅈ’을 지금까지 수업하는 등 교육 내용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COVID-19로 인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교육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범유행 감염병의 장기화 또는 재유행에 대한 불안은 사교육 시장에 큰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COVID-19로 인한 인식 변화는 사교육 공급자의 행동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범유행 감염병 발생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인식 변화는 ‘비접촉’에 대한 것이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었다. 사교육 시장에서도 역시 비접촉과 관련된 강의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 개인 방역이 생활화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특정 수요자들에게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COVID-19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사교육 시장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이전까지는 온라인 강의는 대기업이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를 뜻했으나, COVID-19 이후 온라인 강의는 화상 강의를 의미한다. 화상 강의는 강사와 학생이 온라인 환경에서 동시에 접속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양방향 송출이 가능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비와 빠른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사교육기관이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수업 형태이다. 그럼에도 규모가 큰 대형 학원부터 1인으로 구성된 과외 학습까지 사교육 기관은 점차 화상강의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COVID-19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공된 비대면 생활환경은 사교육 시장에 2가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온라인 강의(화상 강의)의 보편화이다. 온라인 강의는 사교육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여, 비대면·비접촉으로 인한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 교실이라는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기존 사교육 공급자가 교실이 작아 학생 수에 제한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활용도를 확대할 수 있다. 교육이 제공되는 교육 공간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저녁 10시 이후에 금지된 사교육 제한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COVID-19가 종식되어도 온라인 강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함께 u-러닝의 형태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업 양극화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에도 맹점이 있다. 온라인 강의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상황은 강사가 학생의 학업 이해도를 대면 상황만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학업 양극화는 부모의 교육열과 경제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비대면 수업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지닌 학생은 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큰 차이 없이 지식 습득이 가능하지만, 통제된 환경에서만 학습을 해왔던 학생은 온라인 수업의 통제를 약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2016년부터 시행된 자유학년제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COVID-19 장기화로 비대면 학습을 지속하게 되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기주도 학습능력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COVID-19의 장기화와 새로운 범유행 감염병이 재차 유행할 경우의 위험성이 사교육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와 이로 인한 사교육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와 행동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사교육 시장의 변화가 아닌 전반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이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변화를 꾀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는 단순한 비대면 학습을 넘어 자유학년제의 시행 방식과 시행 시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만 연구의 한계로 인해서 이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사교육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인터뷰 참여자를 목적 표집함에 따라 특정 범주에 맞춘 사교육 공급자를 선정하다 보니,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연구자의 거주 지역인 광주광역시의 표본이 월등히 많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적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COVID-19로 인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감지는 가능했지만,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연구자의 한계이다. 이를 밀거름 삼아 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주요 도시로 범위를 넓혀 보편성을 확보한 후 유형별 사교육 공급자와 비교과목 사교육 공급자를 추가하여 심층 연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인애. (2006). 디지털 시대의 학습 테크놀로지. 서울: 문음사.
- 강일국. (2010). 사교육정책의 역사와 의미. *교육비평*, (27), 70-93.
- 곽영순, 백경선, 이미숙, 민재원, 김용(2013). 교사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방안 (연구보고 RRC 2013-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곽영순. (2015). 미래 학교교육 변화 및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한 교사 전문성 탐색. *교과교육학연구*, 19(1), 93-111.
- 교육부. 『교육50년사』. 1998.
-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권성호, 이준, 강경희, 신상희, & 고범석. (2006). u-러닝 코리아 로드맵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1. 서울: 문음사.
- 김영철. (1997). 과외와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6, 1-36.
-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 최정임. (2007).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박순경, 이근호, 백경선(2009). 교육과정 분권화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I 2009-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백일우, 정한나. (2013). 국내 사교육 문헌 분석. *교육과학연구*, 44(4), 1-39.
- 변수용, & 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 39-66.
- 안성훈, & 정영식. (2009). 유러닝 효과성의 일반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7), 379-389.
- 안종배. (2017). 4 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미디어와 교육*, 7(1), 21-34.
- 유영수. (2020). Post-코로나 시대, '비대면 (Untact) 미래서비스' 정의 및 분류에 대한 고찰. *한국 IT 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0, 599-602.
- 윤종혁, 김영철, 김영래, & 한유경. (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1). 한국교육개발원.

- 이규명. (2018). 감염병 대응 영향요인분석:" 사스와 메르스를 중심으로". 한국미래행  
정학회 학술대회, 61-75.
-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  
육과정 구상(연구보고 RRC 2012-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상우, & 곽동균.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케이블인프라활용방안. 정보통신정책 ISSUE,  
15(3).
- 이종재, & 장효민. (2008). 사교육 대책의 유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이혜영, 강영혜, 박재윤, 나병현, 김민조(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 연구 (연구보고  
RR2008-0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임정훈. (2007). 평생학습사회에서의 m-러닝: 개념적 논의와 미래 교육에 주는 시사  
점. 평생학습사회, 3(2), 1-26.
- 임종헌, 유경훈, & 김병찬. (2017). 4 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  
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KEDI] 한국교육, 44(03), 0-0.
- 장혜승.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전망: 초중등 단계의 원격수업을 중심  
으로.
- 전승화, & 김정호. (2020). 언택트 (Untact) 산업 확산의 이론적 배경과 전망. 신산업  
경영저널, 38(1), 96-116.
- 정인성, & 최성희. (2002). 효과적인학습전략. 교육과학사.
- 정제영, & 정예화. (2015).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73-93.
- 정한나, & 백일우. (2018). 사교육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7, 57-97.
- 조규락, 김선연, & 우석구. (2009). e-러닝과 u-러닝의 차이점에 대한 교사의 인식 실  
태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5(1), 45-67.
- 주수영. (2005). 질적연구방법론: 1대1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19)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0~2019)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2011~2019)
-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2017~2019)

- 한선관, 이철현, 최선영, 이상하, 한의섭, 서정희, & 김혜숙. (2007). u-러닝 효과성 분석 및 u-러닝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홍채은. (2020). 재난관리 관점에서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정책 대응과제. 소비자정책 동향, (103), 1-23.
- Creswell, J.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 Creswell, J. D. (2017).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Maxwell, J. A. (2012).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Vol. 41). Sage publications.
- OECD. (2006). Schooling for Tomorrow: Think Scenarios, Rethink Education. Paris: OECD Publishing.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 Patton, M. Q. (2014).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 Sahlberg, P. (2011). Finnish Lessons: What Can the World Learn About Educational Change in Finlan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chwab, K. (2016). 클라우드 슈밤 의 제 4 차 산업혁명. Saeroun Hyōnje.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2016 사교육 현장 조사 서베이 보고서 - 케미스터디 교육사업부 주관